

석사학위논문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2018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김 경 숙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Nail design Using Gustav KLIMT
art work

2018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김 경 숙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Nail design Using Gustav KLIMT
art work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김 경 숙

김경숙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 티 색 채 학 전 공

김 경 숙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색의 마술사, 에로티시즘의 거장이라고 평가받는 구스타프클림트 (1862~1918)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한 작품을 모티브로 응용 재해석하는 접근 방법으로 네일팁에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미술적 사고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구스타프클림트는 회화, 벽화, 스케치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여성의 신체를 작품의 주제로 표현하였고, 이를 토대로 회화 작품에 주로 표현되었던 신체적 특성을 NCS 색채 시스템을 통해 육안 측색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다양한 색채의 특성을 이용하여 네일 디자인을 UV젤, 아크릴, 핸드페인팅, 믹스미디어등 여러 기법을 적용해 인조 네일 팁과 아크릴, 스파출라에 디자인 하고 네일 작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양식과 장식적인 배경, 대칭적인 구성, 금박과 은박의 조화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NCS 색채분석을 통하여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에 표현되었던 색채들과 작품들을 응용하여 네일

디자인 작품10개를 제작하여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심층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림트 작품의 기하학적 형태와 아르누보 적인 표현기법은 네일 디자인에 모티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형태적인 특성을 작품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구스타프클림트 작품 속에 표현된 장식적인 배경과 대칭적인 구성은 네일 디자인으로 응용하여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하고 실용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작가의 무한한 예술적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의 네일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재구성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넷째, 구스타프클림트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고취시키는 물론 여러 가지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디자인의 표현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즘의 세태를 고려하여 화려한 색감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밝고 화려한 느낌의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의 기하학적 패턴과 표현기법, 화려한 금색의 색채를 응용하여 네일 샵 에서도 고객들에게 특별한 디자인과 색상을 권유하고 단순히 그림에 국한되지 않도록 네일 디자인에 접목하게 하였다.

또한 예술 작품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근되어 질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 고안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네일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구스타프클림트, NCS 표색계, 네일디자인, 젤 네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 2 장 구스타프클림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3
제 1 절 구스타프클림트의 생애	3
제 2 절 구스타프클림트의 시대적 배경	8
제 3 장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특성 분석	15
제 1 절 구스타프클림트 색채 특성 분석	15
1) 구스타프클림트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특성 분석	15
2) NCS 통한 색채 특성 분석	15
3)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색채 특성 분석	15
제 4 장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사례	63
제 1 절 제작의도 및 네일재료 설명	63
1) 제작의도	63
2) 네일 디자인 표현기법과 재료 설명	63
제 2 절 구스타프클림트의 조형적 특성을 통한 네일 디자인 연구사례	68
제 5 장 결 론	78
참 고 문 헌	82
ABSTRACT	84

표 목 차

〈표 3-1〉 구스타프클림트 ‘기다림’ 작품의 배색이미지 I	17
〈표 3-2〉 구스타프클림트 ‘유디티Ⅱ’ 작품의 배색이미지Ⅱ	17
〈표 3-3〉 구스타프클림트 ‘황금기사’ 작품의 배색이미지Ⅲ	18
〈표 3-4〉 구스타프클림트 ‘키스’ 작품의 배색이미지Ⅳ	18
〈표 3-5〉 구스타프클림트 ‘처녀’ 작품의 배색이미지Ⅴ	19
〈표 3-6〉 구스타프클림트 ‘죽음과 삶’ 작품의 배색이미지Ⅵ	19
〈표 3-7〉 구스타프클림트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작품의 배색이미지Ⅶ	20
〈표 3-8〉 구스타프클림트 ‘아텔레 블로흐-바우어1’ 작품의 배색이미지Ⅷ	20
〈표 3-9〉 구스타프클림트 ‘여성의 세 시기’ 작품의 배색이미지Ⅸ	21
〈표 3-10〉 구스타프클림트 ‘자포니즘’ 작품의 배색이미지Ⅹ	21
〈표 3-11〉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	23
〈표 3-12〉 연구대상 작품 I 기대	25
〈표 3-13〉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I	28
〈표 3-14〉 연구대상 작품Ⅱ 유디티Ⅱ	30
〈표 3-15〉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II	32
〈표 3-16〉 연구대상 작품Ⅲ 황금기사	34
〈표 3-17〉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V	36
〈표 3-18〉 연구대상 작품Ⅳ 키스	38
〈표 3-19〉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	40
〈표 3-20〉 연구대상 작품Ⅴ 처녀	42
〈표 3-21〉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I	44
〈표 3-22〉 연구대상 작품Ⅵ 죽음과 삶	46
〈표 3-23〉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II	48
〈표 3-24〉 연구대상 작품Ⅶ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50
〈표 3-25〉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Ⅷ	52

〈표 3-26〉 연구대상 작품Ⅷ 아델레 블로흐-바우어1	54
〈표 3-27〉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X	56
〈표 3-28〉 연구대상 작품IX 여성의 세 시기	58
〈표 3-29〉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X	60
〈표 3-30〉 연구대상 작품X 자포니즘	62
〈표 4-1〉 연구사례 I. 인고의 기다림	68
〈표 4-2〉 연구사례 II. 삶의 이중생활	69
〈표 4-3〉 연구사례 III. 대칭속의 조화	70
〈표 4-4〉 연구사례 IV.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71
〈표 4-5〉 연구사례 V. 자유의 날개짓	72
〈표 4-6〉 연구사례 VI. 아름다운 여행	73
〈표 4-7〉 연구사례 VII. 환희의 정점	74
〈표 4-8〉 연구사례 VIII. 찬란한 황금빛 여심의 자화상	75
〈표 4-9〉 연구사례 IX. 여인! 삶을 말하다	76
〈표 4-10〉 연구사례 X. 축제의 향연	77

그 림 목 차

〈그림 2-1〉 구스타프클림트의 생전의 모습	3
〈그림 2-2〉 클림트 작품, 구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	5
〈그림 2-3〉 1903년 무렵 아터 호수에서 플뢰게와 클림트	6
〈그림 2-4〉 1898년경 빈 분리파의 창시자들과 함께	8
〈그림 2-5〉 클림트, 다나에 1907, 08	9
〈그림 2-6〉 구스타프클림트 ‘사랑’	10
〈그림 3-1〉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16
〈그림 3-2〉 구스타프클림트 회화 작품의 배색컬러 이미지 스케일	16
〈그림 4-1〉 2016, 장소영, p.40	66
〈그림 4-2〉 2018, 나비의 여행	66
〈그림 4-3〉 2012, 김경희, ‘강호현파’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색채의 마술사, 에로티시즘의 거장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예술적 차원의 시도로서 네일 디자인에 응용하고 창작하는데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감과 기하학적 패턴, 금박과 같은 화려한 색채를 활용한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바탕으로 응용 재해석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네일 디자인에 접목시키려 한다.

구스타프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화가로서 아르누보 형식의 장식적 양식을 좋아하였으며 전통적이고 순수미술에 반하는 ‘빈 분리파’를 구성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의 관능적 여성 이미지와 찬란하고 화려한 황금빛 색채를 개성으로 하고 성(性)과 사랑, 삶과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우아함과 자유분방함을 표현한 클림트의 여성의 묘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그가 그린 작품속의 여성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듯 보이기도 한다.

구스타프클림트의 알레고리화는 그가 생명과 자아의 의미를 추구하며, 인간의 심리에 몰두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적에 가득 찬 풍경화 역시 열정적으로 그려냈으며, 이런 구스타프클림트 작품들을 모티브로 삼아 응용하고 네일살롱에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네일 디자인에도 접목시켜 다양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의 예술과 네일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이해하기 어렵고 실생활과는 관계가 멀게만 생각되던 예술적 가치가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공존하고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 작품 속에 표현되어진 선과 기하학적인 모양과 형태, 색채 등 다양한 구성을 이용하여 네일 디자인에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응용되어 다양하게 디자인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구스타프클림트의 삶의 배경과 그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통해 그의 작품과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친 환경과 특징을 찾아보고, 네일아트의 개념과 표현기법에 연결해보는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속 기하학적 양식, 장식적인 배경, 대칭적인 구성, 금박과 은박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세분화 하고 분석하여 네일아트 작품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구스타프클림트가 주로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의 미술사적 환경과 배경 그리고 동시대의 작가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구스타프클림트의 표현기법과 그가 작품 활동을 하였던 시대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다양하고 독창적인 네일아트의 표현기법들과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넷째,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속 색에 대해 NCS를 사용하여 어떤 색채가 인식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구스타프클림트 작품 속 모티브를 응용한 네일아트 작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들의 조형적 특성분석을 통하여 네일 디자인의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구스타프클림트의 생애와 시대적배경

제 1 절 구스타프클림트의 생애

구스타프클림트의 부모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8세때 보헤미아¹⁾에서 온 이민자였고, 어머니 역시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어머니가 가진 하나의 소원은 오페라 가수로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었다. 클림트의 어머니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타고 났으며 금세공사인 아버지와 음악을 사랑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다. 클림트가 화가가 되고, 평생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결과였다.

구스타프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빈의 최하층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오스트리아 빈 부근의 시골 바움가르텐에서 1862년 금세공사인 아버지 에른스트 클림트(Ernst KLIMT, 1834~1892)와 어머니 안나 클림트(Anna KLIMT, 1836~1915)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이 일찍 죽게 되어 실제로 장남의 역할을 하였다. 그의 두 동생들도 화가나 금세공사로 일했으나 맏이인 클라라(Clara KLIMT, 1860~1937)는 정신병 환자로 종교적 광신에 빠져있었고, 어머니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클림트 자신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추측이 있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귀족들을 그려 넣은 벽화와 유화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얼굴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그림 2-1〉 구스타프클림트의 생전의 모습

1) 보헤미아 :체코를 동서로 나눠 동부를 체코명 모라바(모라비아)라부르고, 서부를 체히(Cechy)라 부르는데, 체히를 라틴어로 보헤미아, 영어로 보헤미아, 독일어로 뵘멘(Böhmen)이라함.

구스타프클림트의 유년과 청년시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다. 클림트는 자서전을 쓰지도 않았고 매체에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는 데 어릴적 시절을 짐작으로 그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클림트의 아버지는 이민자 출신의 귀금속 세공사이자 조각가였다. 클림트가 나중에 금을 이용하여 모자이크²⁾ 작업을 했을 때 아버지의 수공예품에 대한 기억이 그의 작품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 클림트는 또 오페라 음악을 사랑한 어머니에게서 음악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이어받았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적 작품을 만든 것 또한 그의 어머니께 물려받은 음악적인 애착과 열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클림트의 집안은 다복하였으나, 1873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점차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다.

1867년부터 클림트는 당시 대부분 노동자의 아들처럼 김나지움이 아닌 실업계 학교를 8년간 다녔다. 김나지움은 대학을 가기위한 인문계 중 고등학교였고, 실업계 학교는 14세 때 졸업하고 노동자로 직장을 잡기위한 코스였다. 그러나 클림트는 실업계 학교시절부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클림트는 1876년 빈 응용미술학교에 입학했다. 클림트는 1883년까지 학교에서 모자이크 기법과 금속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 도자기 미술과 이집트, 바빌론의 부조, 슬라브 민족의 민속학 등도 여러 세기에 걸친 다양한 장식 기법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고, 훗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을 전개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 시기에 클림트가 특히 매료되었던 것은 한스 마카르트로 대표되었던 역사화였다. 역사화는 장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섬세한 필치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장르였다. 특히 ‘예술의 연인’이고 빈의 우상인 한스 마카르트의 작품은 지극히 모호하면서도 매혹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클림트는 한스 마카르트를 뛰어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

클림트는 1883년 남동생 에른스트의 가장 가까운 친구 프란츠 마치와 작품을 의뢰 받아서 함께 그렸다.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수리할 때 당시 왕실에서는 각 지역의 실내에다 적당한 그림을 그리곤 했다. 세 명의 예술가들은 트란실바니아의 펠레스키 왕궁과 헤름스빌라의 침실과 같은 빈의 저택

2) 모자이크 : 물타르나 석회, 시멘트 등으로 접착시켜서 무늬와 그림모양을 표현하는 기법

들을 ‘한스 마카르트의 스타일’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1886년 클림트는 그의 인생에서 섬세하면서도 기념비적인 작품을 작업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르크 극장의 내부에 작품을 장식하는 일이었다. <구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은 1888년에 완성되었고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상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려 넣어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금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림 2-2〉 클림트 작품, 구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

이 작업을 함으로서 황제는 특별 격려상인 황금공로십자훈장을 수여하였고, 빈에 그들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생 에른스트가 1892년에 죽자 클림트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휴지기의 멈춘 듯 보인 시간은 어쩌면 클림트의 생각의 깊이를 확보하게 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클림트는 에른스트의 죽음으로 인간의 운명과 삶 그리고 구원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자주하였다. 다시 붓을 들기 시작한 클림트는 1895년 이미 상징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있었다. 그는 상징과 알레고리³⁾를 통해 현실 풍자를 즐겨하고 인간의 운명을 암

3) 알레고리 :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기(other speaking)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알레고리아(allegoria)를 어원으로 한다. 우유(愚喻), 우의(寓意), 풍유(諷諭)로 불리기도 하며 알레고리는 인물, 행위, 배경 등이 일차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를 모두 가지도록 고안된 이야기이다.

시하는 자신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에 클림트는 교육부로 부터 의뢰 받아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대강당을 장식할 만한 내용을 구상 중에 있었고, 오랜 연구 끝에 클림트와 마치는 첫 번째 천장 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마치는 중앙부분과 신학 부분을 작업하고, 클림트는 철학과 의학 그리고 법학 부분을 맡아서 도안을 만들었다.

클림트는 평생 결혼 하지 않고 여러 여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14명의 여인들이 친자확인소송을 내기도 하였다. 많은 모델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는 어쩌면 자신이 진정으로 안식할 여성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혹,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고 일상생활에 안주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묶는 부담되는 일이었을까 짐작해본다. 클림트의 전기 작가들 또한 그가 영원한 피터 팬이 되고 싶어 했음을 짐작하곤 한다. 그것은 클림트가 사랑에 관한 한 상당한 이상주의자였음을 말해주는데, 이상적인 사랑은 쉽게 오지 않는 것과 현실 속에서 클림트가 이상적인 사랑을 나눌 만한 모델은 없었음을 반증한다. 다만, 에밀리 플뢰게라는 오직 한 사람의 여인만이 그의 진정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본다. 플뢰게는 클림트와 늘 함께 한 정신적 반려관계였지만, 두 사람이 정신적 관계 외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클림트의 작품 중 <키스>의 여자 주인공이 에밀리 플뢰게라고 사람들은 짐작 할 뿐이다.



〈그림 2-3〉 1903년 무렵 아터 호수에서 플뢰게와 클림트,
클림트(우) 친구들(좌)

키스라는 작품을 보면 실로 남녀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장면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의 모습은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오히려 남자를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의 입술이 아닌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굳게 다문 여성의 입술은 황홀함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표정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조금만 몸을 잘못 움직여도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벼랑 끝에서 키스를 하고 있다. 결국 <키스>의 작품은 클림트가 꿈에서 상상해 본 이상적인 여인인 에밀리 플뢰게와의 사랑을 그렸던 것으로 추측할 뿐인 것이다.

작품 <키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작품 <키스>의 신비함에 이끌리고 더 황홀해하는 것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클림트는 1918년 1월 11일 뇌졸중 증세로 갑자기 쓰러지고 만다. 플뢰게는 급히 달려와 클림트가 생명을 다할 때 까지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 2월 6일 클림트가 죽은 후 플뢰게는 많은 서신들을 태워 그의 비밀을 없앴다고 한다. 1952년 플뢰게가 삶을 다할 때 까지 그녀는 구스타프의 추억과 함께 살았다. 또한 클림트의 마지막에 함께 한 에곤 실레⁴⁾는 혈육 못지않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에곤 실레는 마지막 클림트의 모습을 그의 그림 속에 담았다. 하지만 비밀스럽게도 빈 분리파의 주축 멤버들이었던 콜로만 모저, 오토 바그너, 그리고 에곤 실레 또한 같은 해에 생을 달리하였다.

4) 에곤 실레 : 1890. 6. 12 ~ 1918. 10. 31, 오스트리아의 화가이며, 클림트의 표현주의적 스타일을 발전시킴.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인간의 묘사하고, 성적인 욕망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20세기 초 빈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제 2 절 구스타프클림트의 시대적 배경

19세기 후반은 정치적으로는 입헌 군주제⁵⁾였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부르주아의 중산계급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였다. 입헌군주와 중산계급의 결합된 문화는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독자적인 시민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과거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귀족전통을 모방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에는 동시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과학의 진일보도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현대적 건축물과 예술물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과 개혁이 절묘하게 공존되는 사회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빈에 국한되었던 것이었고, 그 중심을 벗어나면 클림트가 태어나 힘겹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프롤레타리아⁶⁾ 빈민가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곳은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클림트가 출세한 것은 거의 유일무이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그림 2-4〉 빈 분리파의 창시자들과 함께 1898년경 찍은 사진

1879년 당시의 가장 저명한 역사화가인 한스 마카르트의 대작 제작에 클림트도 참가했고, 마카르트와 같은 화가로 출세하고자 노력했다. 터치아노(Veccdllo Tiziano, 1488/89~1576)나 루벤스를 방불케 하는 마카르트의 역사

5) 입헌 군주제 :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절대군주제, 전제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한군주제라고도 한다.

6) 프롤레타리아 : 무산계급(無産階級) 또는 노동계급(勞動階級)이라고도 하며, 정치상 권력 또는 병력의 의무도 없으며, 다만 자식밖에 남길 수 없는 무산자들을 의미하는 라틴어 "Proletarius"에서 나온 말이다.

화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을 노래한 것이었다. 그가 그린 장대한 역사화에는 전통적 직업인만이 아니라 현대적 직업인도 그려졌으나 그들도 모두 르네상스 시대의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런 역사화는 당시 빈에서 유행한 고전 연극의 화려한 장면들을 그대로 화폭에 옮긴 것이기도 했다. 당시의 연극은 빈 사람들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생활의 모범이었다. 따라서 연극배우들은 어떤 지배계급 사람들보다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클림트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자신 그런 배우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살았다.

1891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미술가협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 아카데미 교수를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성공되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에 동생인 에른스트가 결혼을 했으나, 1892년에는 그의 아버지와 동생인 에른스트가 생을 달리했다. 에른스트의 죽음으로 화가조합은 해체되었고 마치도 클림트를 떠났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고 그 원인이 가족의 죽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그렸던 누드화를 비난했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클림트의 그림이 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2-5〉 클림트, 다나에 1907, 08

그 사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질녀 헬레네의 후견인이 되었고 1893년 헝가리를 여행했으며 다음해인 1894년 교육부에서 빈 대학의 강당에 있는 천장화를 그려줄 것을 의뢰받았고 그 계획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는 정도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자신이 개성을 찾게 됨에 주목 할 수 있다.

세기말의 빈에는 그러한 우의화(allegory, 寓意畵)나 전통적으로 강했던 규범의 종합예술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그 시대의 새로운 예술에도 개방적이었던 유파도 있었었다. 그들은 프랑스 회화에 흥미를 가지고 인상파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클림트를 포함한 젊고 유능한 화가들은 그런 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자극을 받았지만 과거로부터의 전통적인 예술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

그가 그린 미술사 박물관과 부르크극장의 벽화의 그림에서도 그런 점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빈의 게르라흐와 생크 서점에서 나온 알레고리에서도 읽을 수 있다.

클림트가 1895년 알레고리 시리즈에 그린 유화 <사랑>은 사랑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그린 것이었다.



〈그림 2-6〉 구스타프클림트 ‘사랑’

그 그림에서 연인들은 보통의 옷을 입은 현실적 존재지만 그들의 머리위쪽으로 어린 소녀의 날아 다니는 듯한 모습, 처녀와 노파 등의 머리는 세월의 흐름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의 그림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마치 두 사람의 젊은이들은 취해버린 사랑 앞에 있지만 세월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이끌려 그 사랑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듯 보여준다. 이러한 허무의 묘사는 그 뒤 클림트가 그린 빈 대학 천장화나 베토벤벽화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랑〉의 무거운 분위기를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 1862~1931)의 아나톨(Anatol, 1893)과 같이 곡절이 많은 그림자 같은 삶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그림은 또 양식으로서의 사실화와 양식화의 복합적 표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후 클림트 그림의 토대가 되었다.

클림트가 1897년 〈알레고리 새 시리즈〉에 그린 분필과 연필과 금박의 소묘 〈비극〉은 여자가 남자 가면을 썼다는 것이 실제로 주제의 이중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양식적으로는 역시 사실과 장식의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클림트는 장미십자회에 속한 장델빌(Jean Delville, 1867~1953)의 그림 〈사탄의 보물〉의 영향도 받았다. 거대한 문어를 몸에 감은 사탄이 만드는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해초들이다. 이 그림은 〈법학〉에 영향을 미쳤다. 1894년 ‘20인회’가 해체되고 이어 자유미학회(La Libre Esthétique)가 설립되어 진보적인 미술단체로 활동했다. 상징주의 화가 중에서 특히 스위스의 페르디낭호들러(Ferdinand Hodler, 1853~1918)는 클림트와 친분을 맺었고 1904년 분리파 전에 서른 한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호들러도 1881년 파리에 서 장미십자가회와 친해져 그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그의 〈선택받은 자〉는 클림트의 〈베토벤 벽화〉에 나오는 여천사들의 입장을 연상하게 한다. 상징주의⁷⁾를 포함한 19세기 후반의 미술운동 중 하나를 아르누보⁸⁾라고 부른다. 아르누보는 통일된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운동을 뜻

7) 상징주의 : 19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문학운동 및 미술운동을 일컫는 이름이며, ‘상징주의’라는 말은 비평론자이자 시인인 장 모레아스(Jean Moréas, 1856~1910)가 〈피가로〉지(紙)에 기고한 ‘상징주의 선언’(1886)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아르누보 : 유럽의 전통적 예술에 반하여 예술을 수립하여 그 당시 미술사조의 풍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 클림트나 토로프, 블레이크 등의 회화의 영향도 빠뜨릴 수 없다.

한다는 점에서 클림트가 주도하였던 분리파 운동과 비슷하다고 본다. 아르누보나 분리파는 전통적이고 평이한 장식미술과 순수미술의 장벽을 없애고 통합하려 한 부분이 비슷하다. 그밖에는 그 참여자들 사이에 공통성이란 거의 없다. 따라서 영국의 찰스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가 추구한 곡선적인 간소함이나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1868~1956)의 기하학적인 바둑판무늬가 클림트의 곡선이 나 스페인의 가우디(Antoni Gaudi, 1852~1926)가 추구한 곡선과 함께 모두 아르누보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 그들은 모든 예술적 융합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가구와 집기류, 용단 램프 등의 공예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였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등장한 부르주아들이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모방하려는 복고풍이 불었다. 그래서 1836년 프랑스의 시인인 알프레드 뮈쉴레(Louis-Charles-Alfred de Musset, 1810~1857)는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부자들의 방은 골동품 진열장이다. 고대와 고딕 그리고 르네상스와 루이 8세 등 우리 시대의 것들만을 빼고 모든 세기의 유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상황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다.

흡사 세상의 종말이 아주 가까워진 듯, 과거의 폐허 위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 등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정돈되고 일관된 장식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그 선구자는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였다. 만국박람회로 상징되는 산업혁명과 기계생산에 반발한 그는 중세적 수공업을 찬양하고 토속적인 식물장식으로 여러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아르누보를 전개했다.

당시 클림트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영향을 받고 그의 예술관이 바뀌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는 없다. 당시 니체는 독일에서보다 1870년부터 빈에서 유명했고, 쇼펜하우어는 그 전부터 유명했다. 특히 그들은 빈 대학교의 자유주의 전통에 반대하는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빈에서는 키르케고르와 톨스토이도 널리 읽혔고 클림트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클림트에게 영향을 준 사상으로 최근 새로이 밝혀진 것은 루돌프 스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인지학이다. 자유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발

도로프 학교의 창설자로도 유명한 그는 괴테와 쇼펜하우어의 계승자로 클림트의 그림에 영향을 미쳤다. 인지학은 불교와도 통하는 점이 많았다.

클림트가 살았던 19세기말 시대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그리스 르네상스도 살펴보아야 한다. 유럽에서 그리스 문화는 새로운 문화의 계기로 끝없이 되살아났다. 예컨대 근대 독일에서 괴테와 실러를 중심으로 한 바이마르 고전문화가 그 하나의 예이다.

또한 19세기말 빈에서도 그리스 문화는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계기로 등장했다. 그것은 당시 독일에서 니체와 부르크하르트 등에 의해, 괴테 시대의 빙켈만을 중심으로 하여 제우스와 아폴로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의 명랑하고 청순한 그리스 신화체계가 붕괴되고, 호머 이전의 신들로 되돌아가고자 한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그리스의 신화와 문화는 연극, 미학, 신화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의학, 심리학, 그리고 이제 탄생하는 정신분석의 토대가 되었다. 당시 문헌학⁹⁾은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었다. 이러한 그리스 고전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고등학교 교육에 의해서 기초를 형성했다. 그곳의 중요 과목인 라틴어는 최저 2년간 주 8시간, 다음 6년간은 주 6시간 이었고, 그리스어는 3년차부터 주 4~5시간이었다. 그리고 최종시험으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독일어를 상호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빈 사상이 형성되었다. 예컨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¹⁰⁾이다.

클림트가 작업복으로 입은 자루 같은 옷은 바로 그리스 풍이었다.

그리고 여가 즐기기, 유연한 산책, 세속으로부터의 초연 등 사회 도피적으로 보이는 그의 생활 모습은 바로 그리스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방랑은 빈의 보헤미안적 생활에 꼭 들어맞았다. 빈의 지식인들은 주거 불명임을 즐겨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의 독일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당시 독일을 풍미한 니체는 빈에 맞지 않았다.

그리스 신화의 원형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니체가 살던 스위스의 바젤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니체의 선배 동료였던 부르크하르트의 그리스 문화

9) 문헌학 : 문화과학(文化科學)의 하나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기호(言語記號)로 표출한 것으로 문자로써 기록된 문헌을 대상으로 체계화, 계통화함과 아울러 비평, 해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10)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아들이 동성인 아버지에게는 적대적이고 이성인 어머니에게는 호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성적 애착을 가지는 복합 감정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성적 애착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갖는 욕망을 모방하는 것인데, 정신 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사 (Griechisches Kulturgeschichte, 1898~1908)는 디오니소스적 세계에 탐닉하면서 괴테적인 인문주의를 비판했다. 또한 바젤 대학의 법학자이자 문헌학자인 바흐오펜이 모권제(Da Mutterrecht, 1861)에서 인문적 그리스에 대해 선사 시대를 대치시키고, 부권제에 대해 모권제를 주장했다. 이러한 업적들에 의해 부권제 이전의 모권제, 비이성적이고 야성적인 아시아적 세계가 빈에 접목 되었다. 이는 서구와 동구의 경계에 위치한 빈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분리파의 건축과 장식은 이러한 비잔틴적 요소를 갖는 것이었다.

클림트와 코코슈가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와 바흐오펜의 모권제와 디오니소스의 신화가 살아 있다. 클림트가 주도한 분리파 전시관에 있는 정면의 장식들은 텔포이 최초의 아폴론 신전이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진 집이었다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클림트는 분리파 1회 전시회에서 아테네 청년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림으로, 포악한 미노타우로스를 살해한 태세우스의 신화를 묘사한 그림을 포스터로 그렸다. 그리고 빈 대학 당국에서 벽화를 그릴 때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그려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그는 도리어 그것에 대한 반역을 그렸다. 그 대학의 교수들은 자유주의자들로써 소크라테스와 아폴로를 숭상하였다. 클림트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에게 저항했다. 당시 그런 저항세력 중에는 클림트와 출신이 같은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클림트가 그런 노동자들에게 동조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전통에서 분리되는 분리파를 형성하였다. 우리는 다양하고 황홀하게 다가오는 클림트의 생애와 예술적 퍼즐의 조각을 채우는 것처럼 그의 작품을 즐긴다. 그는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스팅크스였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가 풀어놓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작품을 즐길 뿐이다. 클림트의 그림을 즐기다 보면 문득 우리는 몽환과 향락 속에 있는 듯 한 그가 그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갈구하고, 종국에 그것들을 가질 수 없었음을 확인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진정성은 인간 자체의 황홀경을 진심으로 숭고하게 또는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 3 장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특성 분석

제 1 절 구스타프클림트 색채 특성 분석

1) 구스타프클림트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특성 분석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특성 분석은 다양한 색이 가지고 있는 공간 감각, 감정적 효과, 연상과 상징, 전달과정 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특징적인 언어로 객관화시켜 구성한 이미지 공간을 말한다. 이미지 스케일 분석을 통해 색채적인 계획과 감성들의 배색요소들이 디자인 분석을 진행 할 경우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되고, 색감을 이용하면 객관성과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색채이미지 공간은 이미지 특성과 주제로 세분화 되어 작품 특성에 적합한 색채이미지 공간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구스타프클림트 (Gustav KLIMT) 회화 작품에 대하여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2) NCS 통한 색채 특성 분석

스웨덴의 색채연구소가 색채적 특성 분석을 통해 1972년 발표한 스웨덴의 표색계가 NCS이며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의 국가 표준색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체계이다. 본 연구자는 구스타프클림트 (Gustav KLIMT) 회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색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용한 한 작품을 토대로 육안측색과 측색결과에 가장 근접한 컬러를 NCS 분석 시스템을 통한 색 값을 바탕으로 삼각형의 색 분포도에 나타내어 색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그 색채의 값을 표현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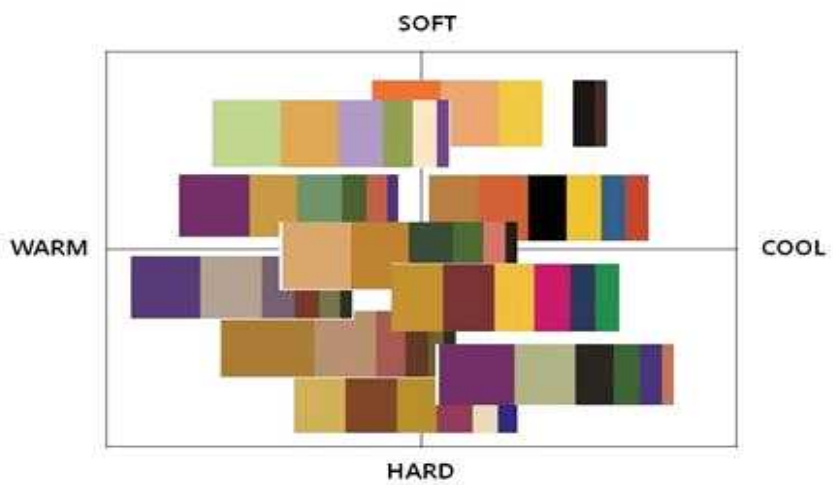
3)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색채 특성 분석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작품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 작품들을 선정하여 <그림 3-1>,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지 스케일에 위치를 놓아 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색채와 형태를 분석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가) 구스타프클림트의 이미지 스케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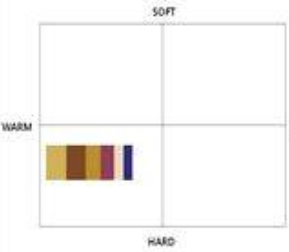


〈그림 3-1〉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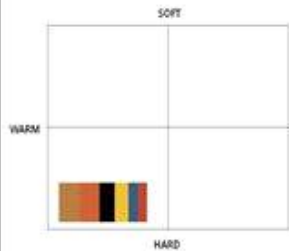
〈그림 3-2〉 구스타프클림트 회화 작품의 배색컬러 이미지 스케일

〈표 3-1〉 구스타프클림트 ‘기다림’ 작품의 배색이미지 I

작품 - ‘기다림’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표3-1〉 ‘기다림’에서 여인의 옆모습과 문양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집트 양식의 표현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우아하면서 이지적인 여인의 모습과 화려한 금색의 장식품들에 사용된 색상의 배색은 차분한 노란색 계열과 딱딱한 갈색계열을 사용하였으며, 보조색으로는 파스텔계열의 베이지색을 사용하였고 강조색으로는 갈색과 황금색을 이용하여 바탕에 그려져 있는 달팽이를 연상케하는 곡선의 느낌을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표 3-2〉 구스타프클림트 ‘유디트 II’ 작품의 배색이미지 II

작품 - ‘유디트 II’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표3-2〉 ‘유디트 II’에서 보이듯이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색상의 배색은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톤 다운된 계열의 색상을 배색하였고, 주조색은 탁한 노란색계열과 주황색계열을 선택하였고 죽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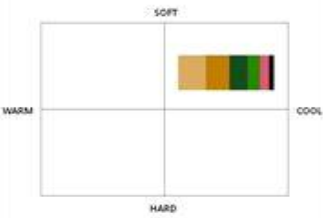
느낌을 살리고자 검은색을 이용해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었다. 작품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주황계열을 사용하여 강조해 주었다.

〈표 3-3〉 구스타프클림트 ‘황금기사’ 작품의 배색이미지Ⅲ

작품 - ‘황금기사’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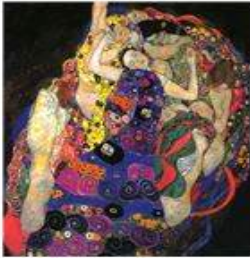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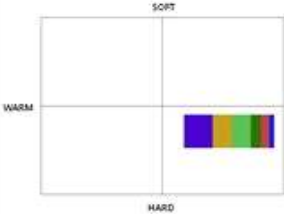
〈표3-3〉 ‘황금기사’의 작품은 대칭적인 구조와 기하학적 패턴이 주를 이루는 작품으로 반복적인 구성을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였으며, 색상의 배색은 경쾌한 느낌과 차분한 느낌의 노랑과 분홍, 갈색을 사용하여 작품의 느낌을 표현하고 황금색의 호일을 이용 작품의 주제에 맞게 표현하였다.

〈표 3-4〉 구스타프클림트 ‘키스’ 작품의 배색이미지Ⅳ

작품 - ‘키스’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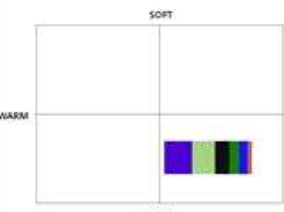
〈표3-4〉 ‘키스’에서 보이는 작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금박의 화려한 맛토를 두른 남녀의 배색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황색계열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보조색은 푸른 정원을 연상케하는 녹색계열과 분홍색을 사용하여 꽃과 나무줄기를 표현하였고 검정색을 이용 곳곳을 강조하였다.

〈표 3-5〉 구스타프클림트 ‘처녀’ 작품의 배색이미지 V

작품 - ‘처녀’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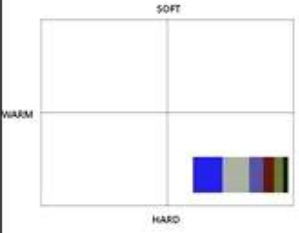
〈표 3-5〉 ‘처녀’의 작품에서 보이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색상의 배열을 순색으로 사용하여 경쾌함을 주려 하였다. 동적인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순색들을 사용하여 원형의 선을 그려 넣었고 주조색인 남색계열의 색으로 차분함도 같이 표현하였다.

〈표 3-6〉 구스타프클림트 ‘죽음과 삶’ 작품의 배색이미지 VI

작품 - ‘죽음과 삶’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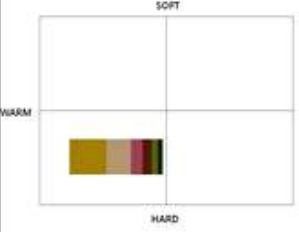
〈표 3-6〉 ‘죽음과 삶’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포와 두려움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색상의 배열을 차분한 남색과 연두색 검정색을 이용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투박하지만 여러 번의 선의 터치를 이용하여 거친 면을 완성하였고 광택감을 주어 색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표 3-7〉 구스타프클림트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작품의 배색이미지Ⅶ

작품 -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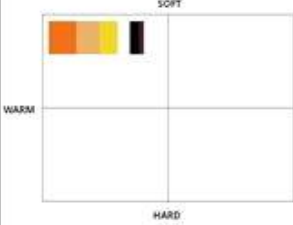
〈표 3-7〉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의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의상에서 자유분방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 색상의 배열을 남색계열과 녹색계열을 사용해 차분하고 차갑고 어두운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검은색과 흰색을 사용해 강조 색과 몽환적인 느낌을 같이 표현하였다.

〈표 3-8〉 구스타프클림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1’ 작품의 배색이미지Ⅷ

작품 -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1’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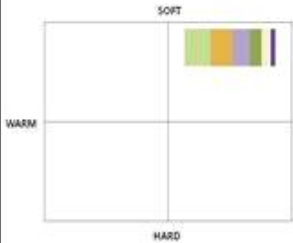
〈표 3-8〉 ‘아델레 블로흐-바우어1’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인 금빛 이미지로 색상의 배열은 황색계열과 베이지계열을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삼각형안의 이집트 양식의 눈이 그려져 있는 옷은 이국적 상징처럼 보인다. 강조 색은 분홍색과 짙은 남색과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곡선이 많이 들어간 있는 부분은 하얀색이 많이 들어간 베이지로 표현하였고 작품의 추상적이고 사실 주의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표 3-9〉 구스타프클림트 ‘여성의 세 시기’ 작품의 배색이미지X

작품 - ‘여성의 세 시기’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표 3-9〉 ‘여성의 세 시기’는 여성의 일대기를 표현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면과 여성스러운 면만을 표현하기 보다는 그 내면의 감정과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색상의 배색을 대조 색으로 사용하였으며 주조색은 밝은 계열의 주황과 노랑과 황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고, 보조색은 주조색과 반대되는 어두운 계열의 검정색과 갈색을 이용해 배경화면을 만들어 주었다.

〈표 3-10〉 구스타프클림트 ‘자포니즘’ 작품의 배색이미지X

작품 - ‘자포니즘’	배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팔레트
		

〈표 3-10〉 ‘자포니즘’ 에 나타나는 축제분위기의 느낌을 바탕으로 색상의 배색을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의 파스텔계열을 사용하였고, 보조색으로는 연두색과 흰색을 섞어서 생동감 있는 작품의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유화인 데도 수채화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의 톤을 투명감 있게 사용하였다.

작품 I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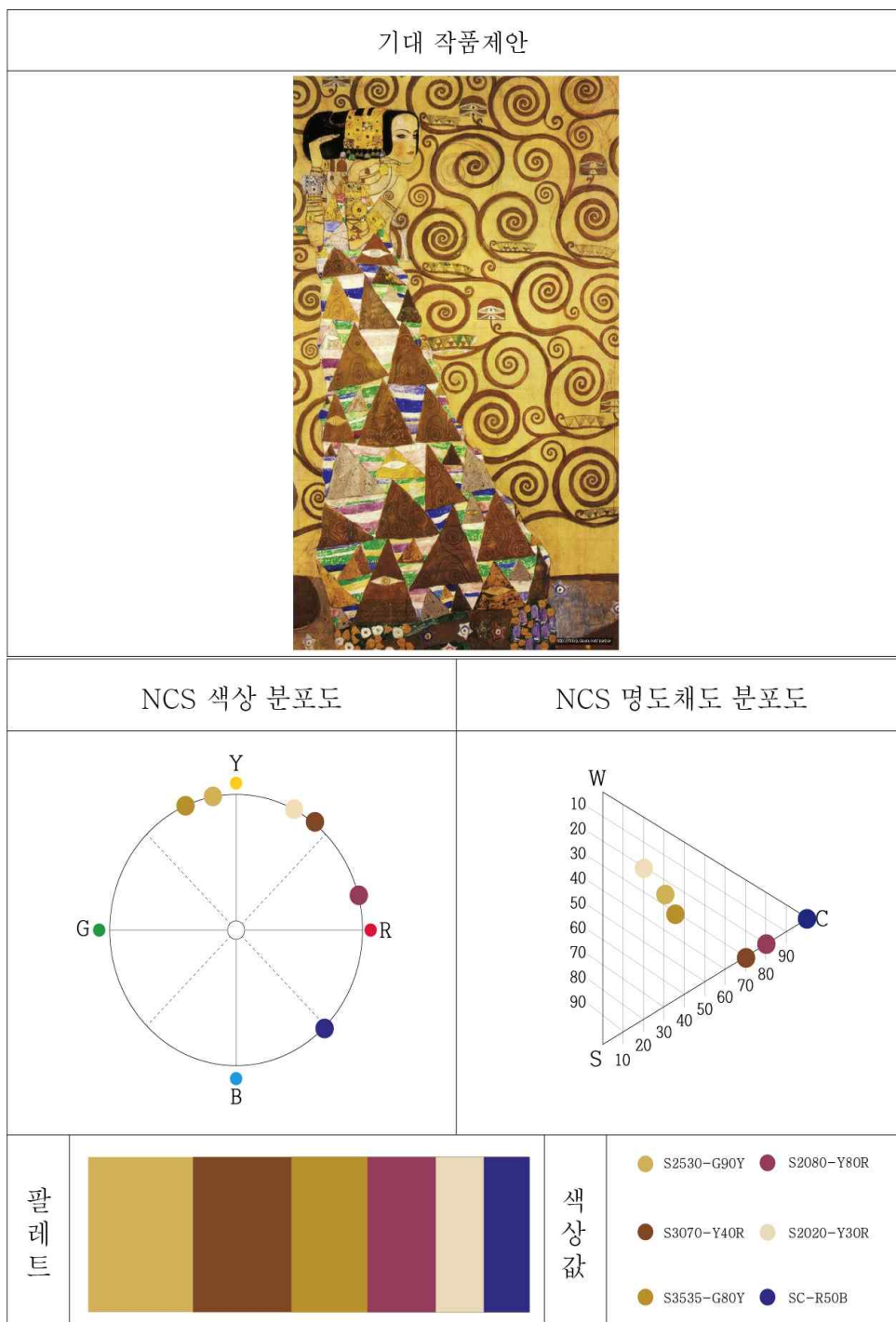
재료 : 아크릴 파우더,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 젤 칼라, 탑 젤

기법 : 핸드페인팅, 엠보, 믹스미디어

작품 및 색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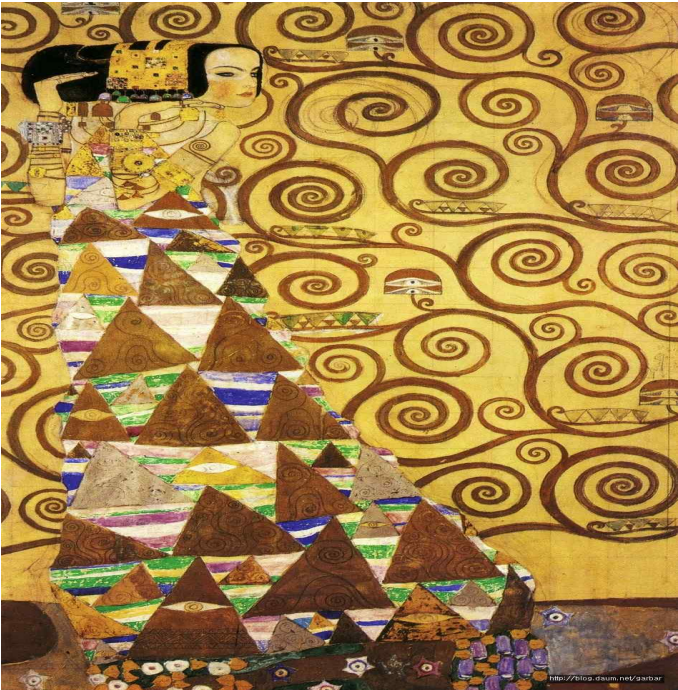
‘기다림’은 스토클레 저택의 〈생명의 나무〉라는 패널화로서 스토클레 저택에 위치한 식당의 긴 벽에 장식되어져 있다. 얼굴과 손을 유일하게 구상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생명의 나무에 휘감겨져 있는 여인이 얼굴은 측면을 향해 있고 몸은 정면을 향한 고대 이집트의 벽화처럼 그려졌다. 이집트적인 인물묘사와 추상화적인 배경이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다. 아홉 면에 구성된 벽화는 양식화의 모티브인 〈생명의 나무〉와 구상적, 추상적 모티브인 〈성취〉와 〈기다림〉이 혼합 된 작품이다. 따라서 〈기다림〉을 설명할 때에 〈성취〉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성취〉라는 작품이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면 〈기다림〉은 예술을 상징한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런 분석을 통하여 사랑과 예술은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는 운명임을 저변에 묻어두고 있다.

〈표 3-11〉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기다림’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2530-G90Y, S2080-Y80R, S3070-Y40R, S2020-Y30R, S3535-G80Y, SC-R50B로 나타났다. 검정색 25% 순색 30%가 포함된 색상의 뉘앙스이고, 노랑(Y)색이 90% 포함된 초록(G)을 이용하였다. 검정색 20% 와 순색 8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색이 8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30%와 순색 7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색을 40% 포함한 노랑(Y)을 사용했다. 검정색과 순색 각각 20%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색을 30% 포함한 노랑(Y)을 사용하였다. 각각 검정색과 순색 3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색 80%가 포함된 초록(G)색을 사용했다. SC-R50B 파랑(B)색이 50%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표 3-12〉 연구대상 작품 I 기대

연구대상 작품 I 기대	
	
	
	
기법	핸드페인팅, 엠보, 믹스미디어
재료	아크릴 파우더,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 젤 칼라, 탑 젤

작품Ⅱ 유디트Ⅱ (살로메)

재료 : 스파출라, 아크릴 물감, 풀팁, 젤칼라, 탐젤

기법 : 핸드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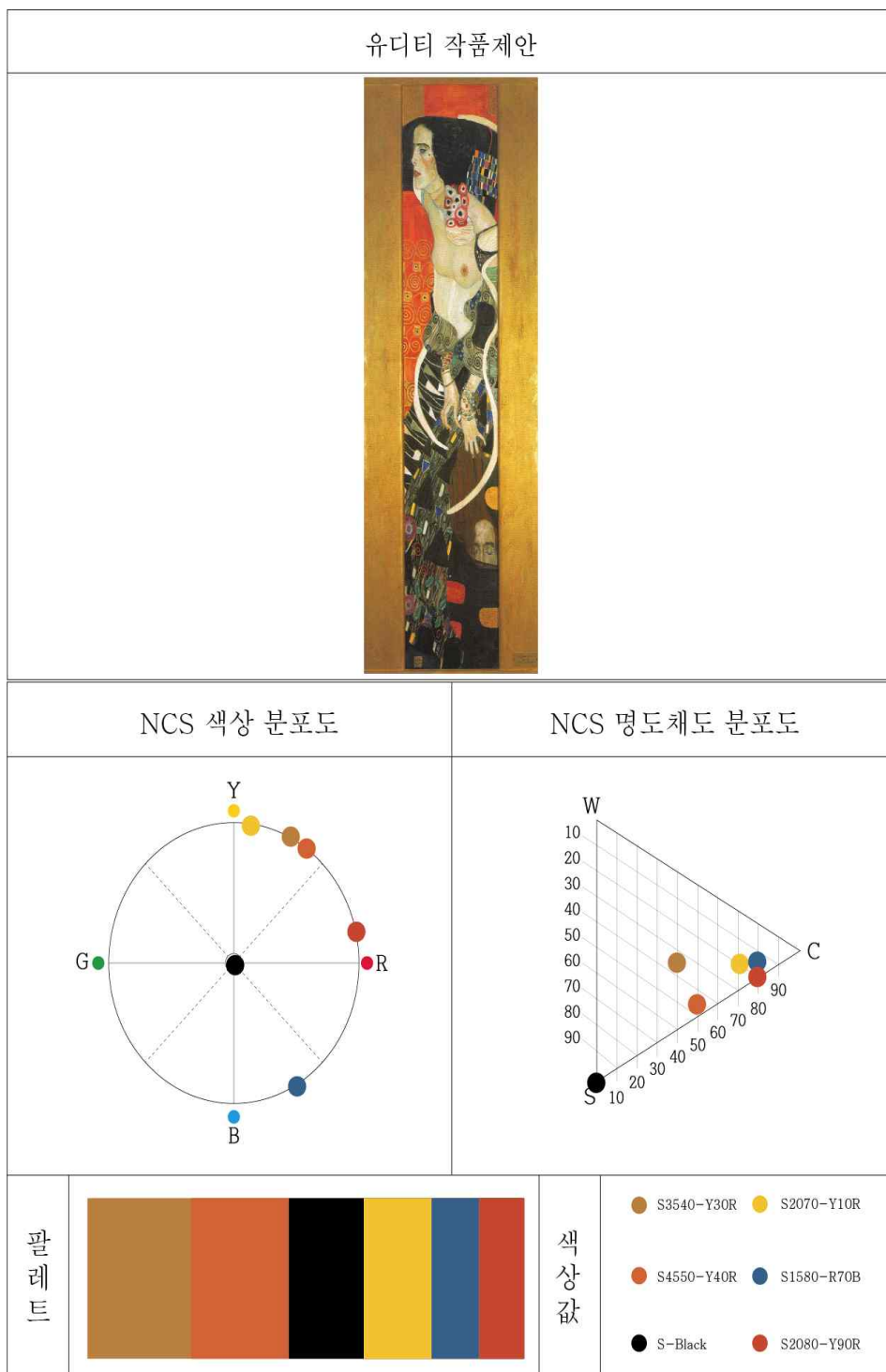
작품 및 색채 설명

팜프 파탈의 상징인 유디트 또는 살로메는 서양 미술에서는 흔히 채택되었다. 남성을 거부할 수 없는 욕망으로 유혹해서 결국 파탄으로 이끄는 이미지의 실체가 유디트(살로메)였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유디트(살로메)는 홀륭하고 지혜를 갖춘 여인으로 보이지만,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유디트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전형적인 팜프 파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그림 뿐만이 아니라 클림트의 다른 작품들 또한 대부분 팜프 파탈을 표현하고 있는데, <유디트Ⅱ>는 전편에 이어 동일한 주제로 1909년에 다시 표현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거의 인물 등신 크기에 맞춰서 제작된 이 그림을 보면 색과 문양, 그리고 인물의 형상을 서로 겹쳐놓은 클림트 특유의 화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장식예술과 회화 장르를 섞어놓은 듯한 구성이 특이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색채의 무늬와 물감의 질감이 구분되는 경계가 허물어짐을 알 수 있다. 유디트와 살로메의 공통점은 남자의 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점이다.

잘려진 남자의 목은 거세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자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여인의 공포를 이 그림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죽은 남자의 목을 움켜쥔 여인의 손은 갈퀴처럼 구부러져 있으며, 이런 모습은 서늘하고 오싹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렇듯 그림이 보여주는 여인은 유혹적이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구스타프클림트가 표현하려는 것은 여인이 가진 성욕에 대한 원초적 공포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인을 장식한 보석이나 장식품들은 사로잡힌 남성을 암시하며, 여인의 머리가 검정색임은 여인의 야생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드러난 젖가슴은 도상학적으로 자비를 뜻하겠지만, 그림에서 그 의미는 퇴색해 지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그림에서 클림트가 보여주고

싶어 한 그것은 유디트를 살로메와 뒤섞어놓는 것이었다. 유디트가 뜻하는 지혜로운 승리는 이 그림에서는 잔인한 승리자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는 기법상, 장식 예술의 특성을 강조한 배치는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배경과 겹치는 여인의 의상은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의상을 연상시키게 한다.

〈표 3-13〉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I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유디트 II (살로메)’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3540-Y30R, S2070-Y10R, S4550-Y40R, S1580-R70B, S-Black, S2080-Y90R로 나타났다. 검정색 35%와 순색 4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30% 포함된 노랑(Y)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20% 순색 7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1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45%와 순색 50%가 포함되어진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40% 포함된 노랑(Y)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15% 순색 80%가 포함되어진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70% 포함된 빨강(R)색을 사용했다. S-Black을 이용하였다. 검정색 20% 순색 8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9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하였다.

〈표 3-14〉 연구대상 작품Ⅱ 유디트 Ⅱ

연구대상 작품Ⅱ 유디트 Ⅱ (살로메)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스파츨라, 아크릴 물감, 폴팁, 젤칼라, 탑젤	

작품Ⅲ 황금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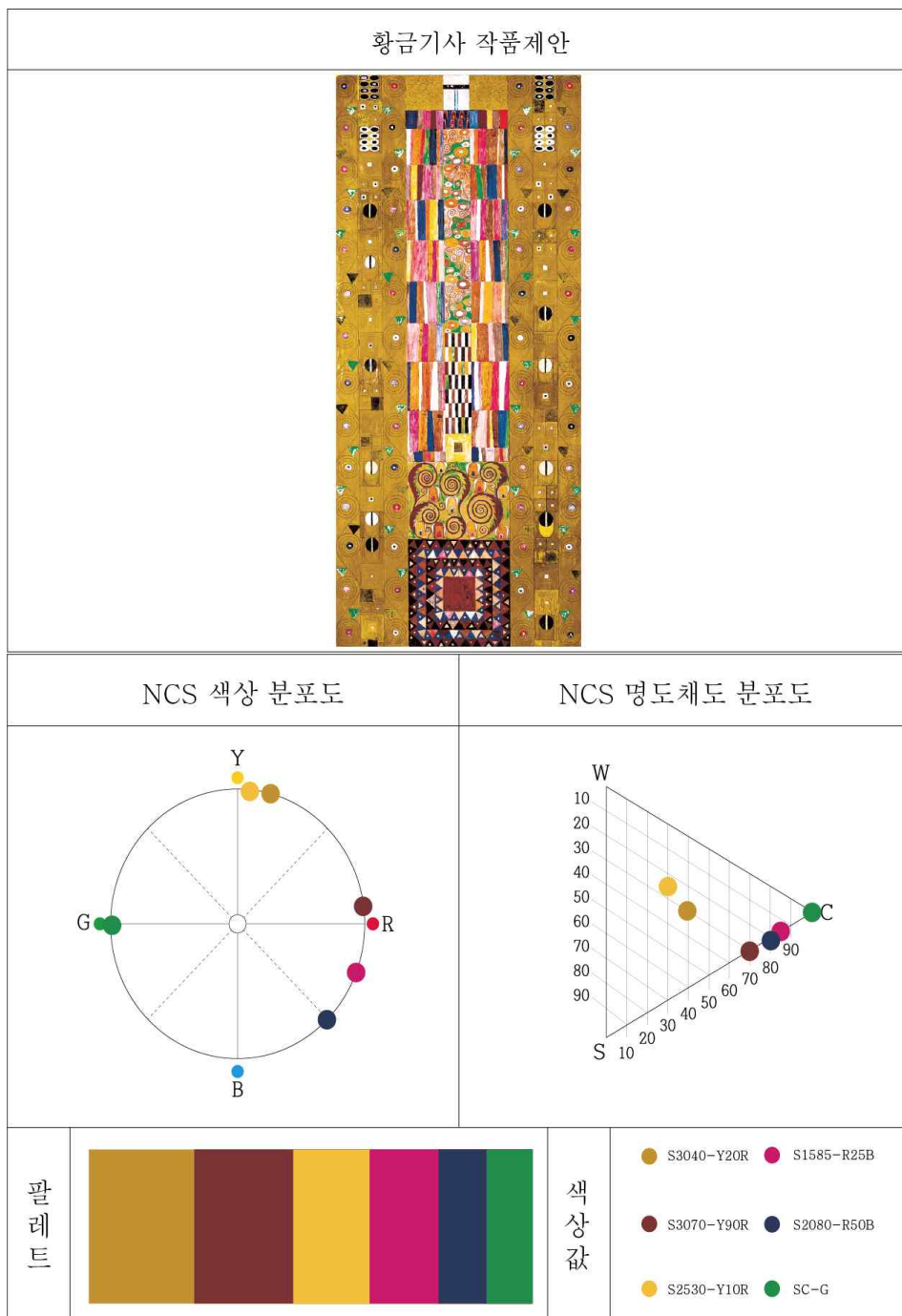
재료 : 아크릴 파우더, 리퀴드, 젤칼라, 금박호일,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무광 탑젤, 폴팁 브러쉬

기법 : 핸드페인팅, 믹스미디어

작품 및 색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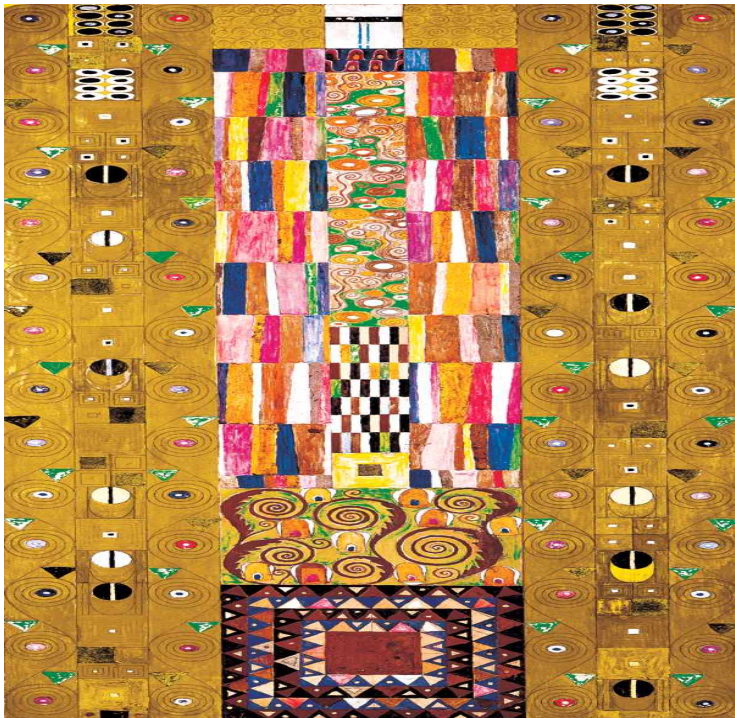
브뤼셀의 스토클레 저택의 벽화를 장식하기 위한 초안인 황금기사는 작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복적인 패턴의 무늬와 기하학적 형태와 대칭적인 구성을 통한 재미있는 표현을 하였으며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다. 웅장함을 상징하는 구도와 이 작품 옆에 같이 그려있는 그림들이 어우러져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다. 유화로 그려낸 작품이지만 수채화의 느낌이 많이 나며 기법으로 판지를 사용하여 금속의 느낌까지 주는 작품이다. 황금기사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모자이크 장식을 표현하고 중앙에 금색은 호일을 이용하여 화려한 색감을 표현해주었다. 명도가 낮은 색을 이용하여 딱딱한 느낌의 작품을 묘사하였고 곡선 라인은 UV젤로 그려 넣었고 금색호일로 강조하였으며 무광으로 마무리하면서 매트한 컬러감과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표 3-15〉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II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황금기사’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3040-Y20R, S1585-R25B, S3070-Y90R, S2080-R50B, S2530-Y10R, SC-G로 나타났다. 검정색 30% 순색 40%가 포함되어진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20% 포함된 노랑(Y)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15% 순색 8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파랑(B)이 25%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30% 순색 7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9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20% 순색 8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50%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25% 순색 30%가 포함되어진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10% 포함된 노랑(Y)색을 사용했다. SC 고채도의 초록(G)을 사용하였다.

〈표 3-16〉 연구대상 작품Ⅲ 황금기사

연구대상 작품Ⅲ 황금기사	
	
	
	
	
	
기법	핸드페인팅, 믹스미디어
재료	아크릴 파우더, 리퀴드, 젤칼라, 금박호일,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무광 탑젤, 풀팁 브러쉬

작품Ⅳ 키스

재료 : 롱커브팁,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 칼라, 탑 젤, 브러쉬

기법 : 핸드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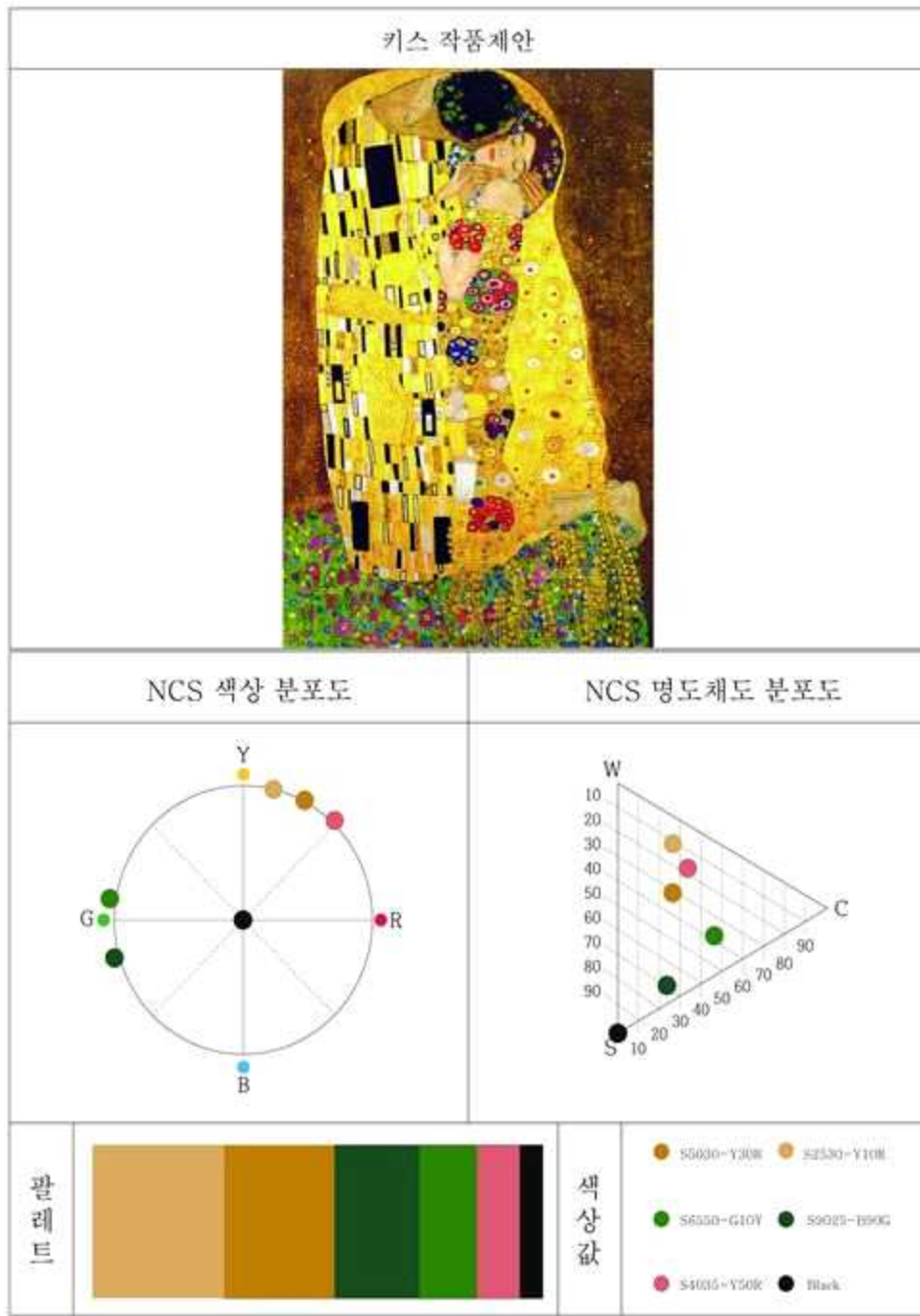
작품 및 색채 설명

〈키스〉는 1907년과 1908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남녀 모두 무릎을 꿇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자의 다리가 숨어 있다. 황금빛 배경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같다. 그 화려한 장식이 관능적이어서 남녀의 성적 행위를 강조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체의 분위기는 도리어 종교적이다. 실제로 클림트가 표현한 황금색들은 비잔틴양식의 모자이크 이콘화와 일본 그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자의 통짜 옷에 그려진 직사각형의 주로 검은 무늬는 여성 옷의 화려한 원형무늬나 곡선과 대조적으로 각각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옷에도 사각무늬가 있고 남자의 옷에도 그리스적인 나선형 무늬가 있다. 여성의 곡선이나 남성의 직선이 반드시 각각의 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의 연인관계라는 것도 그리 분명한 사실이 아니다. 이 그림은 단적으로 대단히 엄숙해 보이고 우주적이며 종교적이라는 느낌까지 심어준다.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구의 끝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위협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찬 우주와 같은 것일 것이다. 이처럼 클림트의 세계는 “더없이 즐겁고 황홀한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다.¹¹⁾

11) 박홍규. (2009) 『구스타프클림트 정적의 조화』 서울 : 가산출판

〈표 3-17〉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V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키스’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5030-Y30R, S2530-Y10R, S6550-G10Y, S9025-B90G, S4035-Y50R, Black로 나타났다. 검정색 50% 순색 3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30% 포함된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25% 순색 3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10% 포함된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65% 순색 5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10%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 90% 순색 2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초록(G)이 90% 포함된 파랑(B)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40% 순색 3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50% 포함되었던 노랑(Y)색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Black을 사용하였다.

〈표 3-18〉 연구대상 작품Ⅳ 키스

연구대상 작품Ⅳ 키스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롱커브팁,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 칼라, 탑 젤, 브러쉬

작품 V 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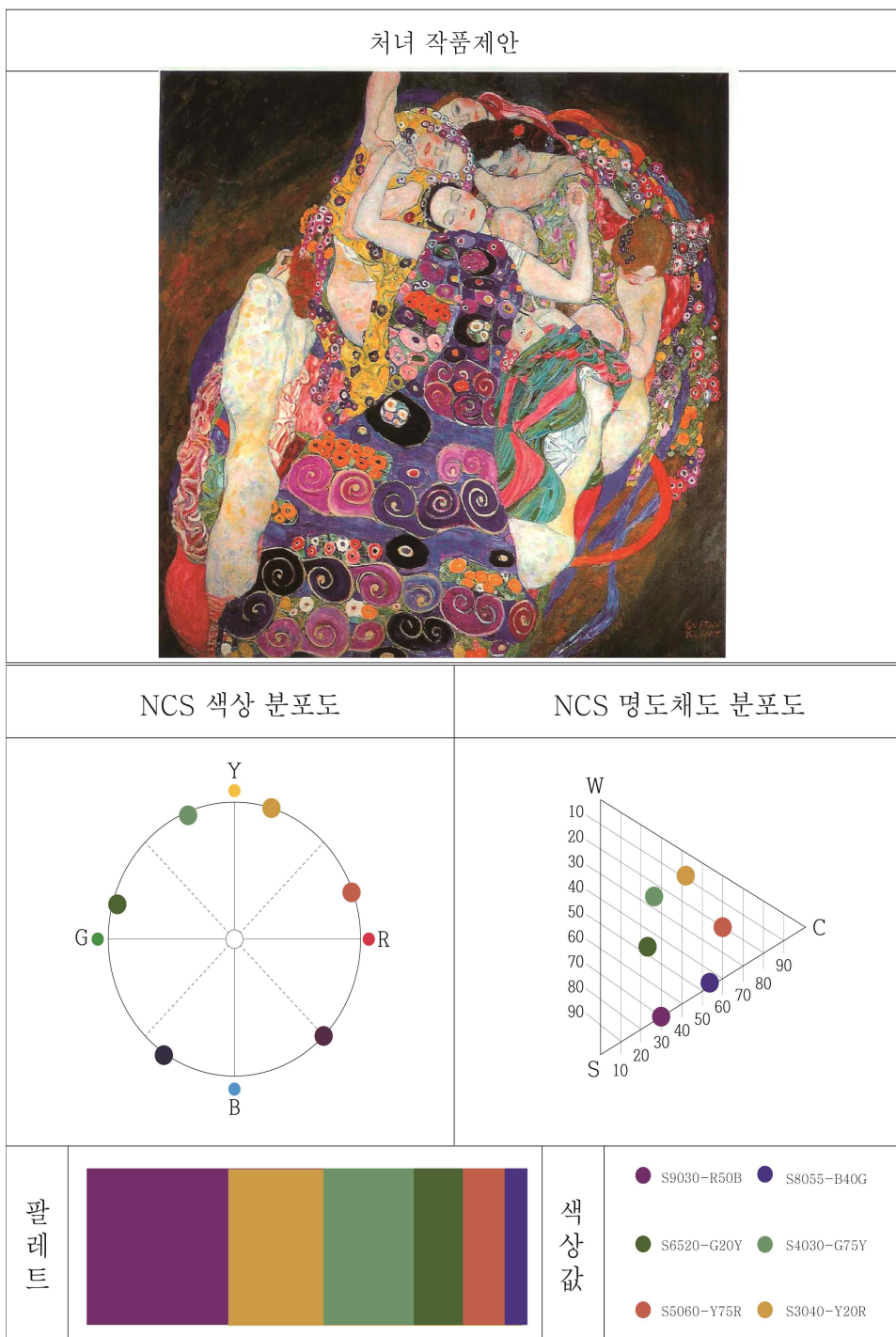
재료 : 롱커브팁,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칼라, 탑젤, 브러쉬

기법 : 핸드페인팅

작품 및 색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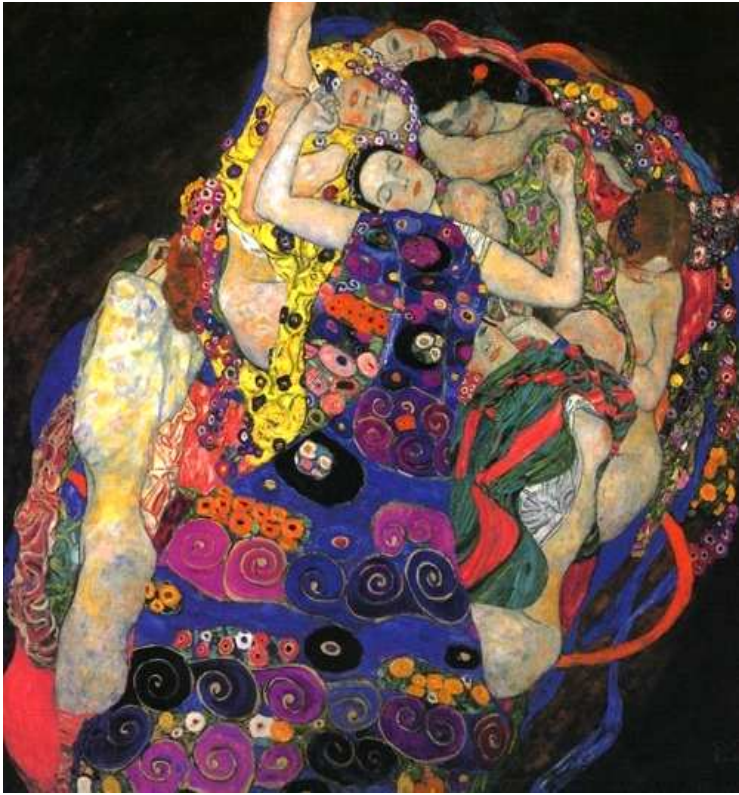
클림트의 후기의 작품 중 몇 가지는 초상화와 우의화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원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주인공은 무언가를 이야기할 듯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작품 〈처녀〉가 이러한 후기 우의화 중 하나이다. 처녀작품에서 자신은 순종적인 태도로 누워서 잠들어 있고, 갈망과 환희, 만족감을 얼굴에 드러낸 채 반라의 젊은 여성들이 그 주변을 선회하고 있다. 인물의 모습이 들어있는 단순한 타원형은 후기 클림트 작품에 흔히 나타나는 지배적인 구성장치로 볼 수 있다. 밝은 색채감과 대담한 장식의 모티프도 클림트 후기 양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표 3-19〉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처녀’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9030-R50B, S8055-B40G, S6520-G20Y, S4030-G75Y, S5060-Y75R, S3040-Y20R로 나타났다. 검정색 90% 순색 3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50% 포함되어진 빨강(R)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80% 순색 5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초록(G)이 40% 포함된 파랑(B)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65%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20%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40% 순색 3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75%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50% 순색 6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75%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30% 순색 4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20% 포함된 노랑(Y)을 사용하였다.

〈표 3-20〉 연구대상 작품Ⅴ 처녀

연구대상 작품Ⅴ 처녀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롱커브팁,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칼라, 탑젤, 브러쉬

작품Ⅵ 죽음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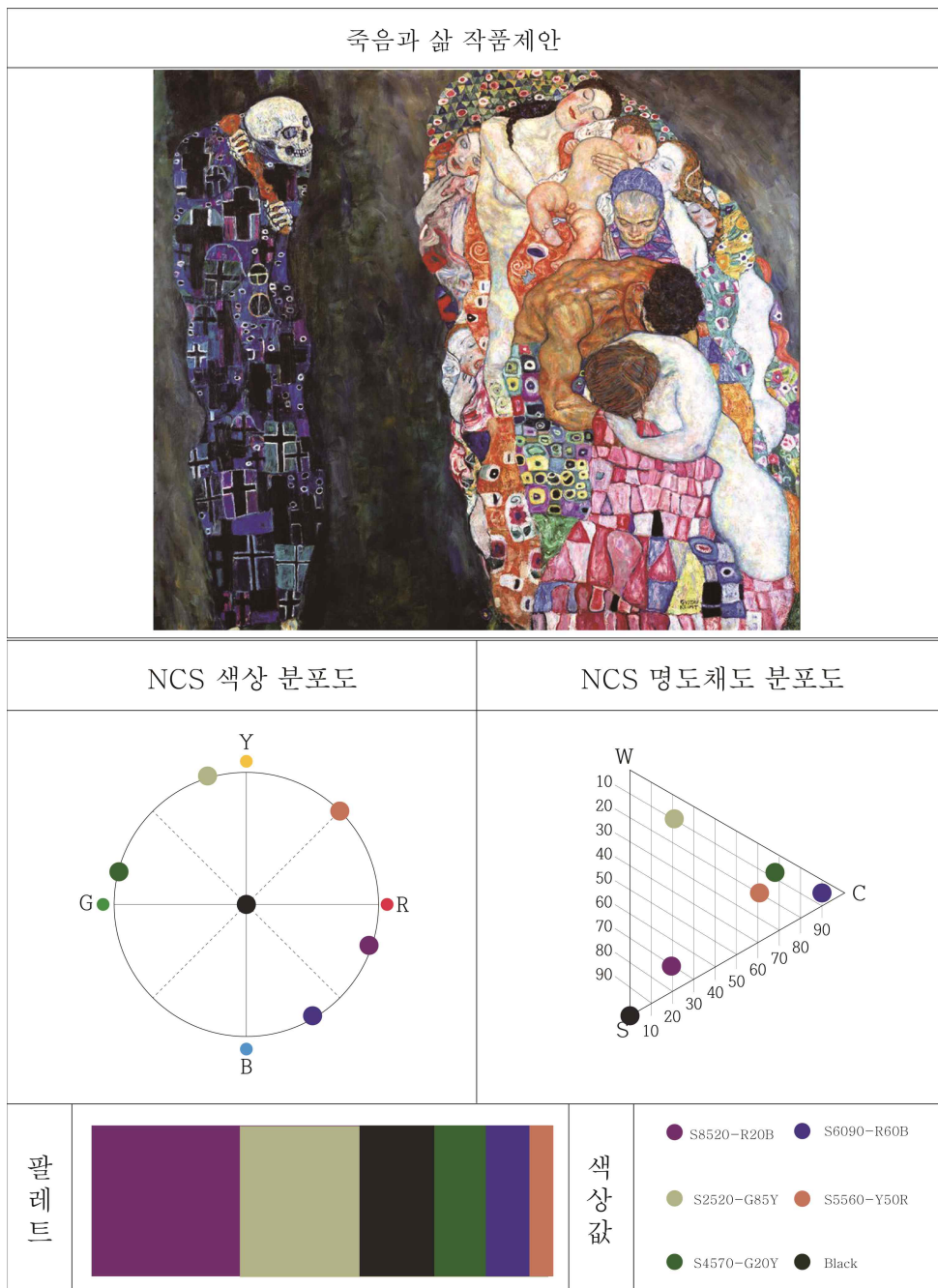
재료 : 풀팁, 아크릴 물감, 젤칼라, 탐젤, 스펀지

기법 : 핸드페인팅

작품 및 색채 설명

관능적 욕망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는 구스타프클림트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소이다. 〈죽음과 삶〉이라는 작품은 죽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에는 관능적 욕망도 꿈틀거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908년부터 1916년까지 8년의 기간에 걸쳐 작품을 완성했다. 오랜 시간 완성한 작품인 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왼쪽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이지만 오른쪽은 다채롭다. 왼쪽 죽음의 사신은 죽음을 상징하는 기분이 나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신의 옷을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이다. 하지만 클림트는 모든 작품들을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섬뜩하게 묘사되어야 할 사신에게까지 부드러운 곡선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삶’을 표현하고 있고 어두운 색상의 배경 속 다채로운 순색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조각과 같은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단에 아기를 들고 있는 여성과 아기가 보이는 것은 삶을 시작하는 생명의 탄생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삶의 마지막 부분인 노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뒤로 침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여성들만 나타나 있는 이곳에는 남성 한명이 등장하고 있다. 얼핏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을 보니 즐거운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피부색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유가 무엇이든 남녀 사이에 말 못할 아픔이 있는 작품으로 표현된다. ‘삶’ 부분에서 다양한 색채를 이용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지만 왼쪽 그림과 같이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는 그림이다.

〈표 3-21〉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I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죽음과 삶’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8520-R20B, S6090-R60B, S2520-G85Y, S5560-Y50R, S4570-G20Y, Black로 나타났다. 검정색 85%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20% 포함된 빨강(R)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60% 순색 9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60%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25%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85%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55% 순색 6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5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45% 순색 7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20%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Black을 사용하였다.

〈표 3-22〉 연구대상 작품Ⅵ 죽음과 삶

연구대상 작품Ⅵ 죽음과 삶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폴팁, 아크릴 물감, 젤칼라, 탐젤, 스펀지			

작품Ⅶ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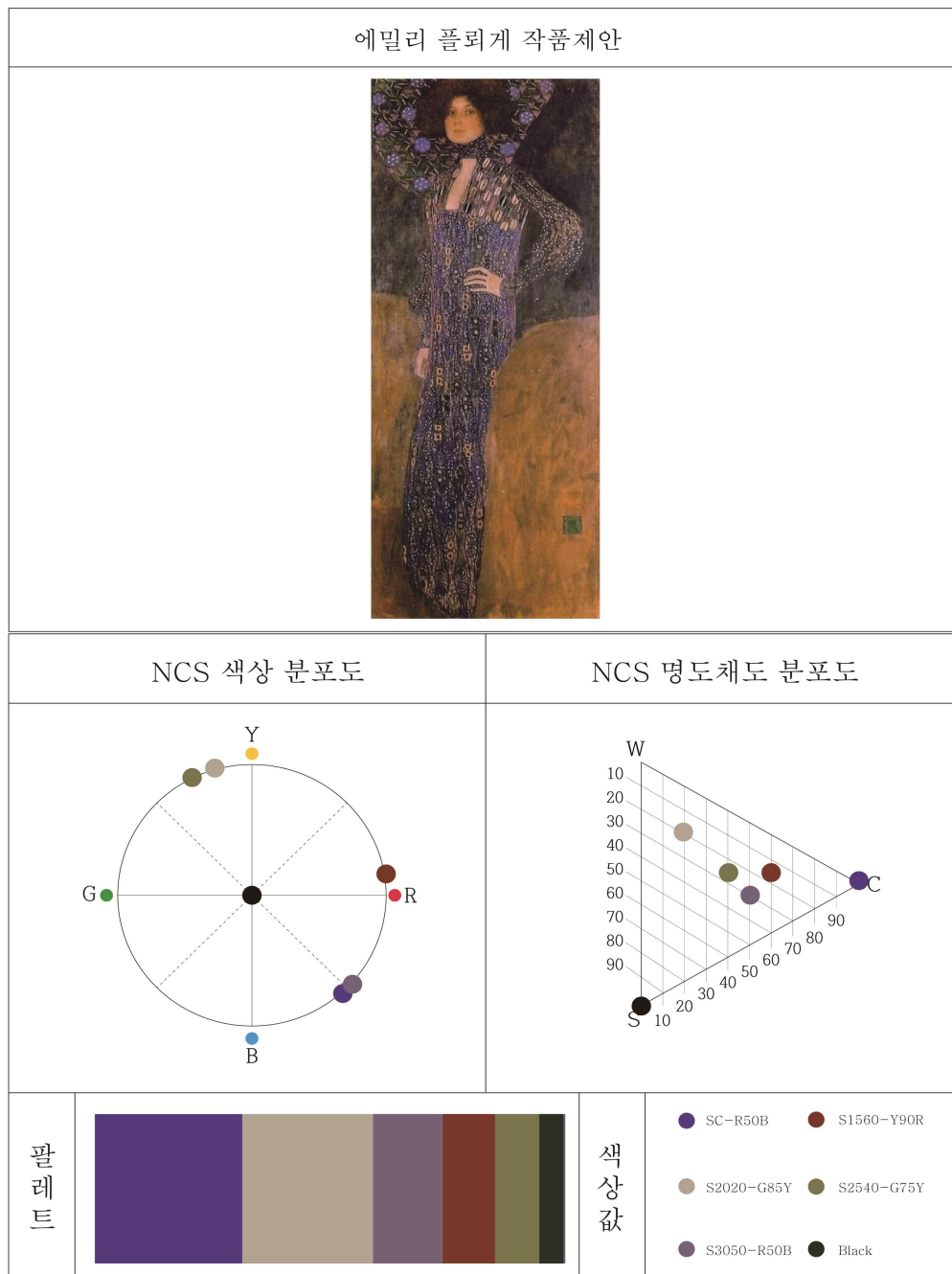
재료 : 페디, 스퀘어 팁,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칼라, 탐젤, 브러쉬

기법 : 핸드페인팅

작품 및 색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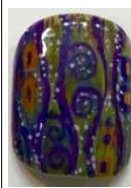
흔히 '여인의 화가'라 불리는 만큼 구스타프클림트 주위에는 여인들이 많았다. 당시 빈의 문화 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유한 부인들이 클림트를 후원하며 초상화를 의뢰한 것은 물론 그는 직업 모델, 청소부, 매춘부 등을 이젤 앞에 세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했다. 여인들은 단순히 그림의 모델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애인으로 때로는 친구로 클림트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중에서도 에밀리 플뢰게는 클림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함께한, 클림트에게 각별한 여인이었다. 동생 에른스트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클림트는 에른스트의 어린 딸의 양육에 도움을 주느라 플뢰게 자매들과 줄곧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에밀리와 일상과 관련된 것 또는 일과 관련된 소소한 것들을 수많은 편지로 주고 받았고 매년 아터 호숫가 별장에서 여름 한 철을 함께 지냈다. 그러나 클림트와 에밀리가 연인 관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그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순수하며 플라토닉한 사랑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클림트는 에밀리를 모델로 서너 점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1902년에 그린 이 작품은 클림트의 그림에 있어서 모델을 장식적 아이콘으로 다룬 최초의 그림으로 꼽힌다. 이 초상화를 시작으로 클림트의 그림은 모델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황금빛 찬란한 장식 표면에서 인물 역시 주인공인 대신 장식의 한 부분이 되는 화면으로 나아간다. 초상화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서 한참이나 앞서간 초상화를 에밀리 자신은 물론 그녀의 가족들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에 이 작품은 클림트가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1908년에 빈 시가 비싼 값에 사들였다.

〈표 3-23〉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II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C-R50B, S1560-Y90R, S2020-G85Y, S2540-G75Y, S3050-R50B, Black로 나타났다. SC 파랑(B)색이 50%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15% 순색 6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9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20%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노랑(Y)이 85%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25% 순색 4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75%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30% 순색 5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50%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Black을 사용하였다.

〈표 3-24〉 연구대상 작품Ⅶ 에밀리 플릭게의 초상

연구대상 작품Ⅶ 에밀리 플릭게의 초상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페디, 스퀘어 팁,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칼라, 탑젤, 브러쉬				

작품Ⅷ 아델레 블로흐-바우어1 의 초상

재료 : 룽팁, 아크릴물감, 베이스 젤, 젤 칼라, 무광 탐젤, 브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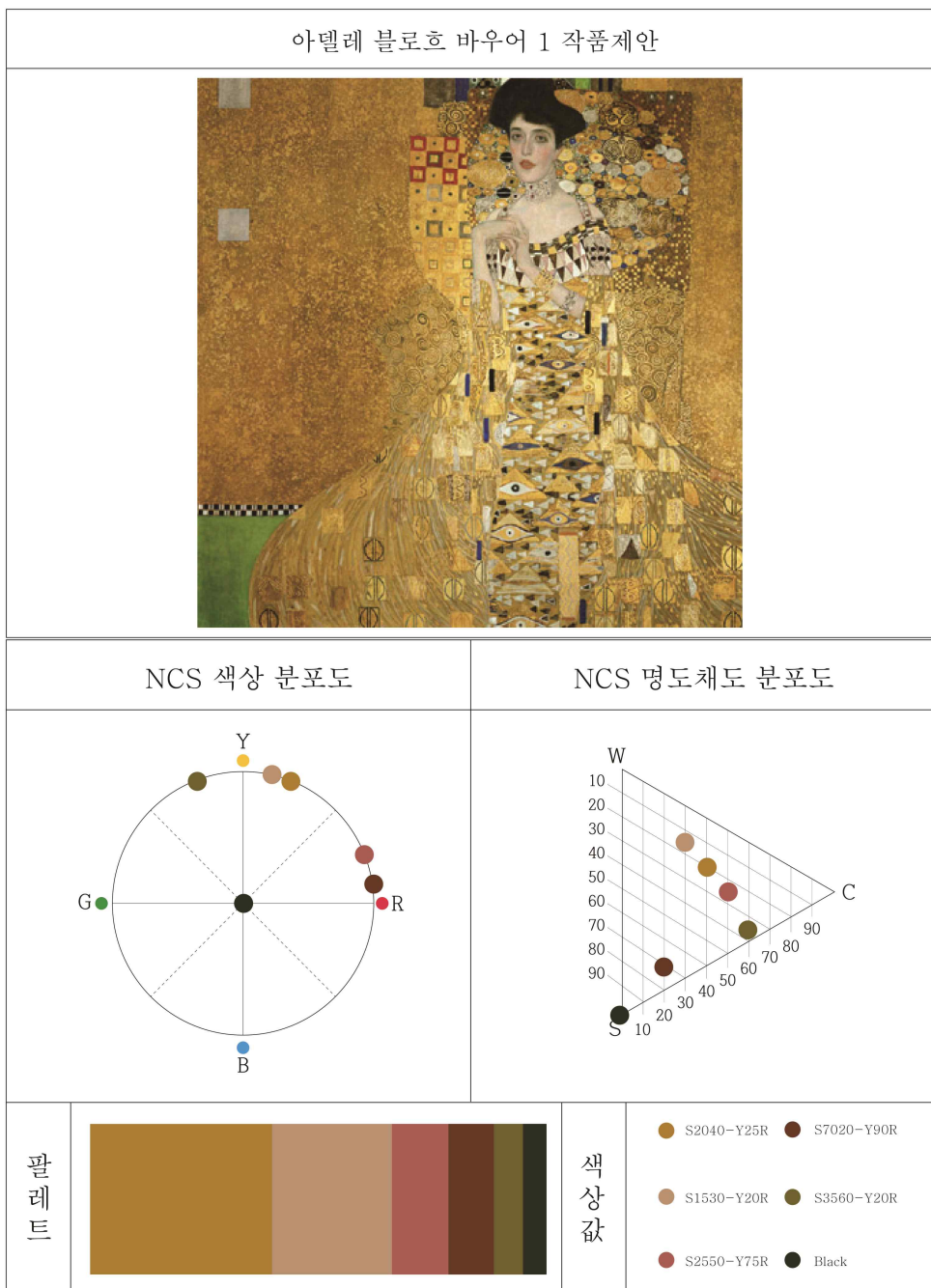
기법 : 핸드 페인팅

작품 및 색채 설명

아델레가 황금의 연못에서 수련 꽃처럼 피어오르는 것만 같다. 상당히 강렬한 매력을 지닌 존재로서 모델을 표현하였다. 그림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으로서 아델레의 얼굴, 손, 어깨 부분 등이 전부이다. 그림의 전체의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1/12이 채 못 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아주 작은 부분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식적 무늬와 패턴으로 처리함으로써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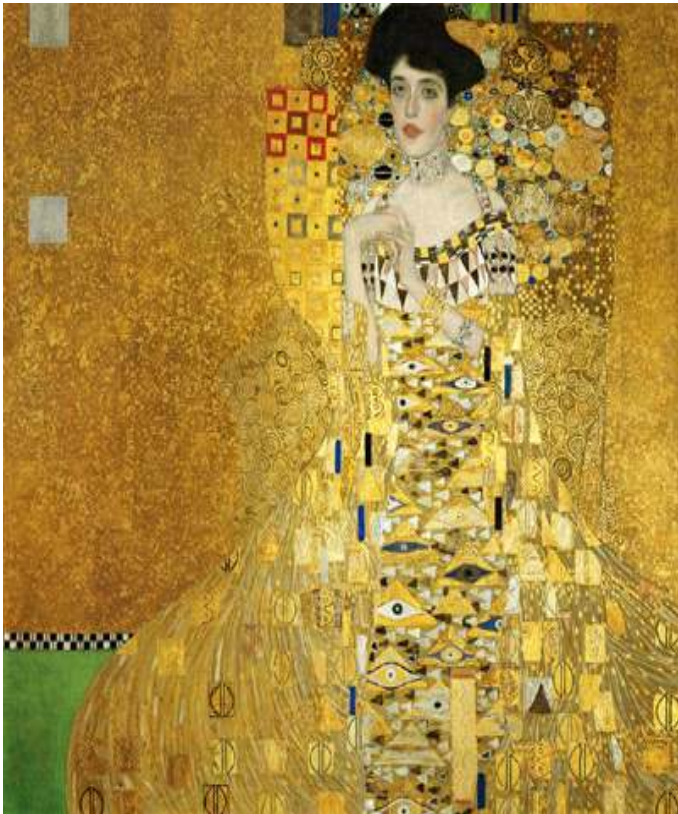
작품에서 사실적인 처리가 극소화 되었지만 클림트는 작품 속에서 아델레가 가진 개성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꽤 많은 신경을 썼다. 섬세하고 여린 인상과 대비되는 강한 자존심이 돋보이는 표정이 작품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었다. 손을 표현처리한 부분도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아델레는 지금 왼손으로써 오른손을 감싸고 있고, 그녀가 이런 포즈를 취했던 것은 아델레 자신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아델레는 어릴 적 큰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이 심하게 손상되고 말았다. 타인들에게 부러움의 시선을 받아온 그녀이지만, 그녀도 숨기고 싶은 아픔을 가슴에 지니고 있었고, 클림트는 거기에 자신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얹어서 매끄럽게 작품을 완성했다. 그만큼이나 모델을 향한 클림트의 애정이 잘 나타나는 그림이다. 2006년 이 그림은 에스티 로더 창업자 아들인 로널드 로더에게 자그마치 1억3천500만 달러에 팔려 역사상 가장 비싼 값으로 거래된 그림중 하나가 되었다.

〈표 3-25〉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VIII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 작품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2040-Y20R, S7020-Y90R, S1530-Y20R, S3560-Y20R, S2550-Y75R, Black로 나타났다. 검정색 20% 순색 4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25%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70%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90% 포함된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 15% 순색 3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빨강(R)이 20% 포함된 노랑(Y)을 사용하였다. 검정 35% 순색 6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20% 포함된 노랑(Y)을 사용하였다. 검정 25% 순색 5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75%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Black을 사용하였다.

〈표 3-26〉 연구대상 작품Ⅷ 아텔레 블로흐-바우어1

연구대상 작품Ⅷ 아텔레 블로흐-바우어1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롱팁, 아크릴물감, 베이스 젤, 젤 칼라, 무광 탑젤, 브러쉬

작품Ⅸ 여성의 세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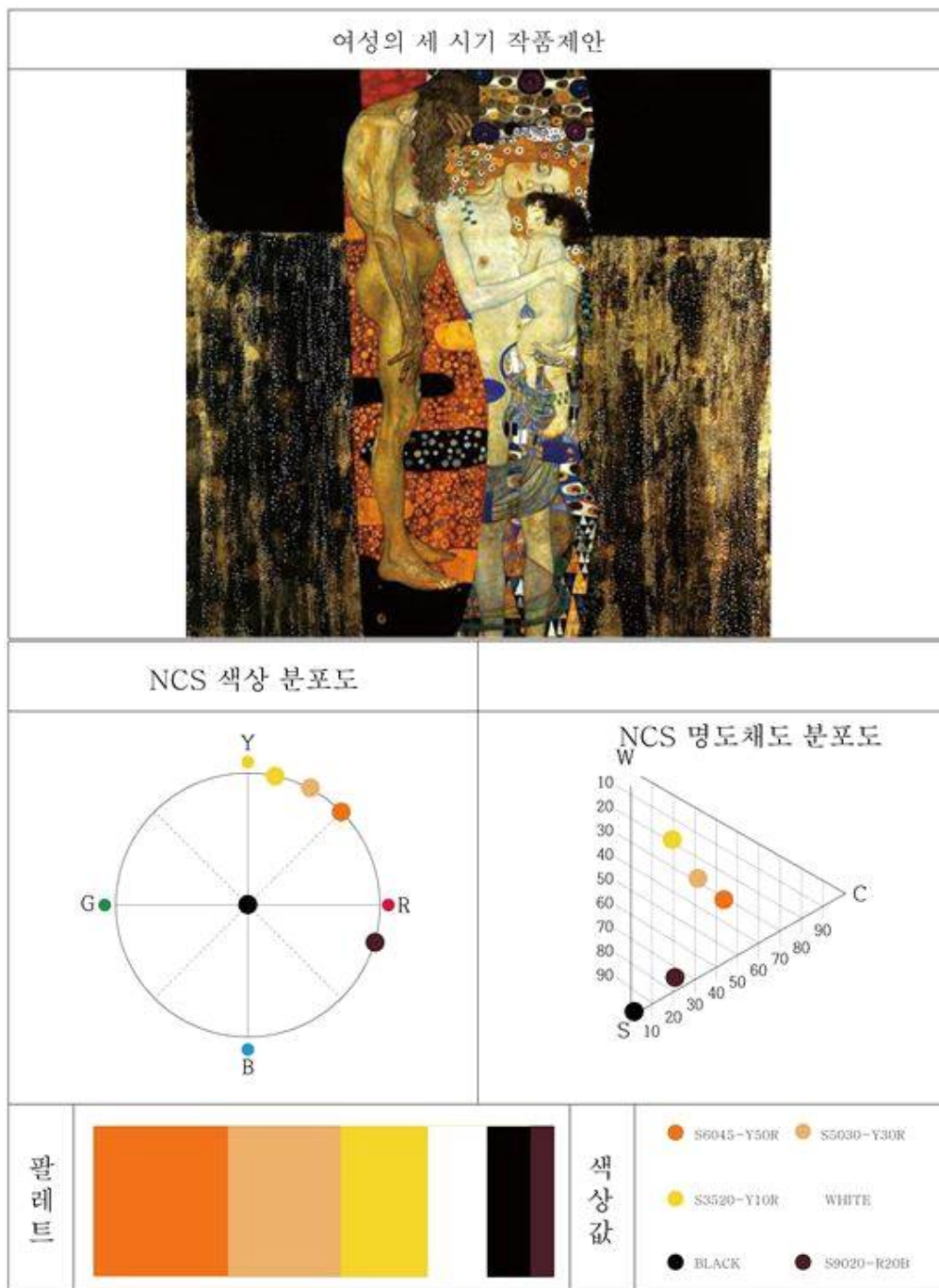
재료 : 롱커브팁,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베이스 젤, 젤칼라, 탑젤, 브러쉬

기법 : 핸드페인팅

작품 및 색채 설명

여성의 세 시기 작품은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적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기도하다. 화려한 색채감과 찬란한 황금빛, 생명과 소멸 또는 존재의 생성 등을 작품 속에 잘 그려 넣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인의 일생을 묘사하였고,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노후의 여인을 묘사한 그림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마치 엄마에게 평온히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을 연상케하고 왼쪽 노후의 여인은 몸에 주름이 가득하고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참한 듯 고개를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대비시켜 놓은 듯하다. 분위기 또한 탄생과 죽음에 대한 대비를 조화롭게 그림 속에 그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에는 여성을 그린 작품이 많은데 여성의 세 시기속 여성들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아름다움과 관능적인 미가 여성의 전부라는 것을 탈피한다는 의미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표 3-27〉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IX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여성의 세 시기’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6045-Y50R, S5030-Y30R, S3520-Y10R, S9020-R20B, White, Black로 나타났다. 검정색 60% 순색 4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5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50% 순색 3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3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35%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10% 포함되어진 노랑(Y)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90%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20% 포함되어진 빨강(R)색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White 와 Black을 사용하였다.

〈표 3-28〉 연구대상 작품Ⅸ 여성의 세 시기

연구대상 작품Ⅸ 여성의 세 시기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롱커브팁,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베이스젤, 젤칼라, 탐젤, 브러쉬

작품 X 자포니즘

재료 : 롱커브팁,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베이스젤, 젤칼라, 탑젤, 브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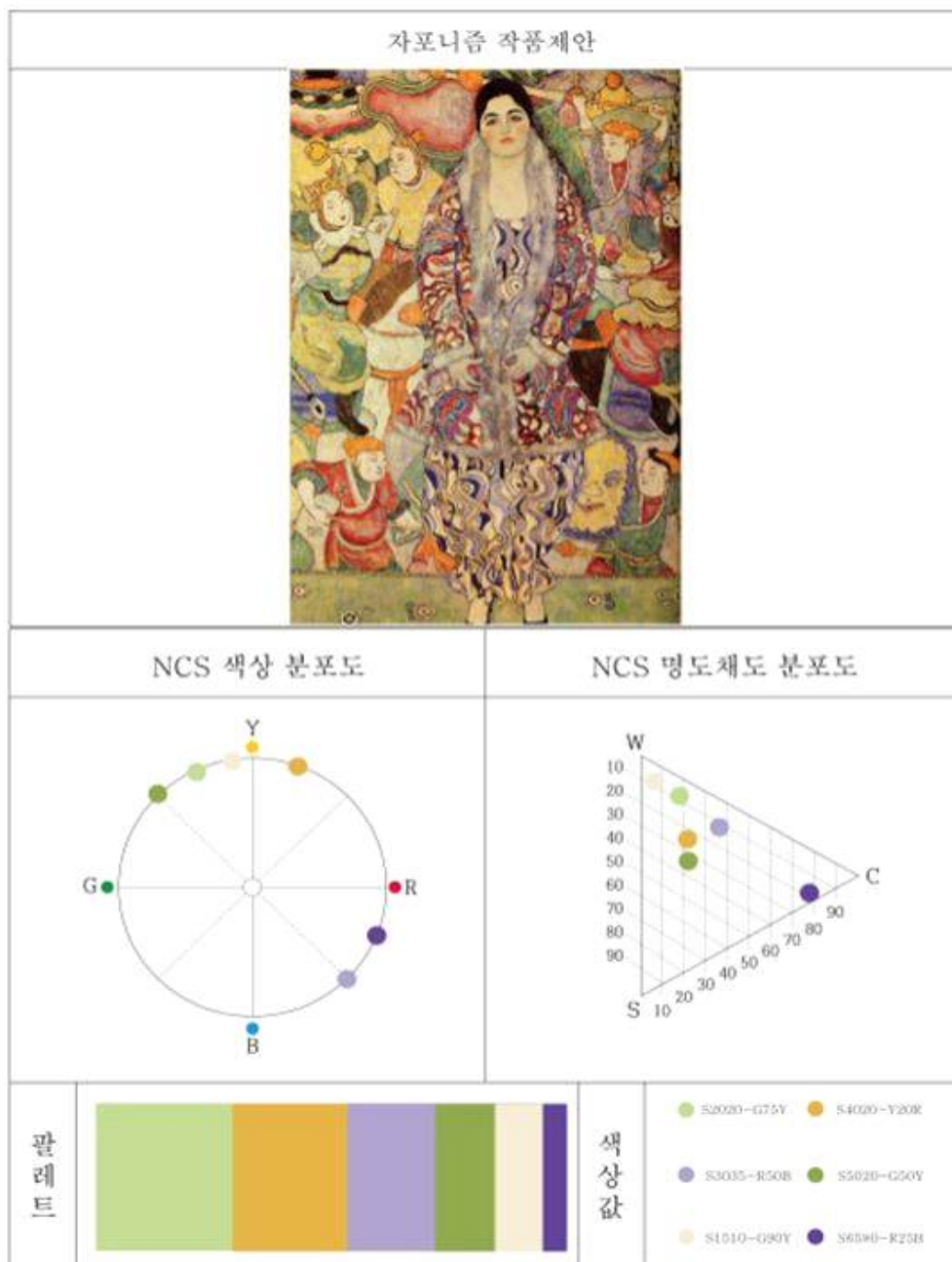
기법 : 핸드페인팅

작품 및 색채 설명

자포니즘은 프리데리케 마리아 베어라고도 불리며 무희라는 작품과 공통적으로 아시아적인 요소들을 그림소재로 포함하고 있다. 무희라는 작품에서는 무희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의 다채로운 색과 배경의 무늬가 하나가 되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듯이 자포니즘(프리데리케 마리아 베어) 또한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밝고 따뜻한 느낌의 색 계열을 이용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더욱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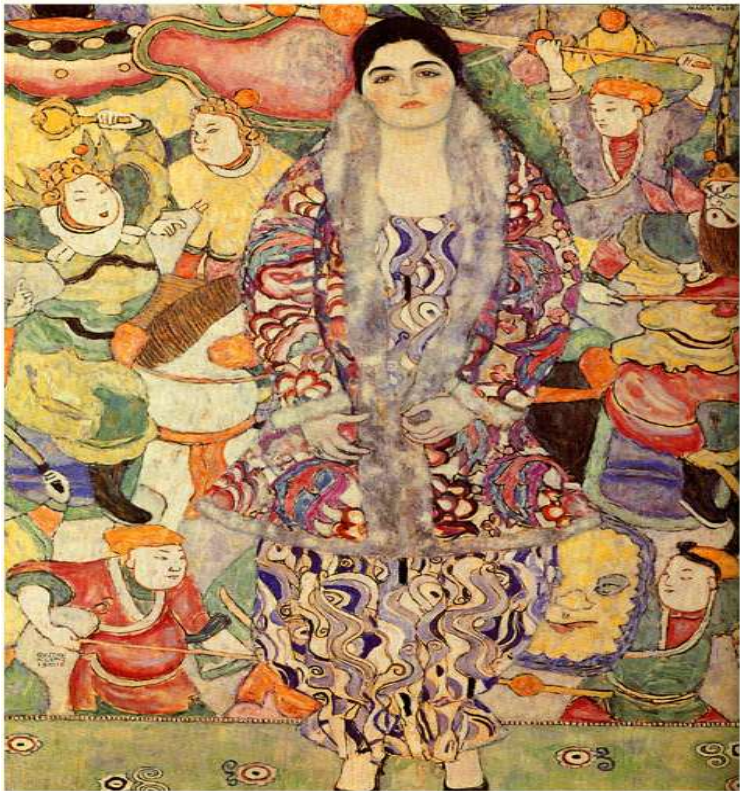
여인의 모습은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 기쁨과 몽환적인 얼굴표정을 짓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유화이면서도 수채화의 느낌이 물씬 나며 그 표현을 위해 색의 투명 감을 더해주었다.

〈표 3-29〉 구스타프클림트 회화작품의 NCS 색채 분석 X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 ‘자포니즘’의 NCS 색상 값을 보면 S2020-G75Y, S4020-Y20R, S3035-R50B, S5020-G50Y, S1510-G90Y, S6580-R25B로 나타났다. 검정 20%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노랑(Y)이 75% 포함된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 40%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빨강(R)이 20% 포함된 노랑(Y)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30% 순색 35%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50%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50% 순색 2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노랑(Y)이 50% 포함되어진 초록(G)색을 사용했다. 검정색 15% 순색 1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며, 노랑(Y)이 90% 포함되어진 초록(G)을 사용하였다. 검정 65% 순색 80%가 포함된 색의 뉘앙스이고, 파랑(B)이 25% 포함된 빨강(R)을 사용하였다.

〈표 3-30〉 연구대상 작품 X 자포니즘

연구대상 작품X 자포니즘	
	
   	
기법	핸드페인팅
재료	롱커브팁,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베이스젤, 젤칼라, 탑젤, 브러쉬

제 4 장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사례

제 1 절 제작의도 및 네일 재료 설명

1) 제작의도

무한한 예술적 작품들을 명화로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술적 가치를 네일팁 위에 표현하고자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색의 마술사, 에로티시즘의 거장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적, 색채적 특성을 분석하여 네일 디자인에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의 기하학적 형태와 장식적인 배경, 대칭적인 구성, 찬란한 황금빛과 화려한 색채를 띄는 작가 특유의 회화작품을 네일 디자인에 접목시켜 그의 작품을 재구성하고 색채의 다양함을 충분히 반영하여 네일 작품 디자인의 모티브로 제작 표현하고자 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는 풍경화도 많이 그렸는데 네일 작품의 배경에 응용하여 표현하였고, 여인들의 모습을 여러 모양들로 형상을 바꾸어 시도하였다. 네일 디자인 작품에 쓰인 재료들은 아크릴과 젤네일,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해석하여 다양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2) 네일 디자인 표현기법과 재료 설명

네일 디자인의 여러 표현 방법으로는 아크릴릭 네일과 젤 네일(Gel Nail), 엠보 표현기법, 핸드페인팅 및 여러 기법을 혼용하여 만드는 믹스미디어(Mix Media) 기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네일아트 디자인 재료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그중 가장 대중적인 아트 재료로는 팔리쉬, 아크릴 물감, 에어 브러쉬, 인조보석, 데칼, 스티커 등으로 세분화 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에 나타난 색채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색상의 재발견, 색상의 다양화에서 탈피하여 네일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네일 디자인에 접목하여 사용했던 색상을 NCS 표색계를 이용하여 육안 측색을 하고 이미지의 색채적 특성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1) 젤 네일(Gel Nail)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젤 네일은 인조 네일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형 없이 오래 지속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아크릴릭 네일과 비교하면 비슷한 점도 있으나, 재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브러시를 이용하여 젤을 골고루 얇게 펴 바르면 파일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시술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젤의 종류는 하드 젤과 소프트 젤(쑥오프젤)이 있고, 하드 젤은 시술 후에 색상이 있는 에나멜을 바르고 지워도 원형 그대로 형태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하드 젤은 아세톤에 녹지 않기 때문에 시술한 것을 제거해야 할 경우 표면 파일링이 필요하게 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이 되고 있다. 소프트 젤은 색상 에나멜을 바르듯 얇은 패턴으로 펴 바르고 표면 파일링 없이도 샌딩블록으로 표면 정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젤을 올린 후에는 표면의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손톱표면이 매끄럽다. 또한 아세톤에 잘 녹아서 시술이나 제거가 매우 용이하다.¹²⁾

(2) 아크릴릭 네일(Acrylic Nail)

스컬프처 네일(Sculptures Nail)이라고 불리는 아크릴릭 네일은 리퀴드 타입의 아크릴릭(Liquid acrylic)과 파우더 타입의 아크릴릭(Powder acrylic)물질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두 물질을 이용해서 네일 팁과는 또 다르게 인조 네일을 만들 수가 있다. 아크릴릭 네일의 장점은 자연적인 정상 네일과 네일 팁은 물론 자연의 얇은 네일이나 물어 뜯겨진 네일을 보강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¹³⁾

아크릴릭 네일의 주요 재료로는 프라이머, 아크릴릭 리퀴드, 아크릴릭 파우더, 네일폼등이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아크릴릭 볼을 네일에 올리고 올린 볼이 잘 접착 될 수 있도록 자연 네일에 바르는 것이다. 프라이머는 보통 1~2회 정도 바르고 첫 번째 시술한 프라이머가 뿌연 우유빛으로 건조된 후

12) 전계서. p172

13) 전계서. p151

에 두 번째 프라이머를 하고 촉촉한 상태에서 아크릴릭 볼을 얹는 방법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프라이머의 주요 성분으로는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 외과용 합성수지)이라고 하는 합성수지로 강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는 절대 묻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크릴릭 리퀴드는 에틸렌 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ethylen glycoldemethacrylate)성분과 관절 보철 접착제나 의치상으로 폭 넓게 사용되는 에틸 메타크릴레이트(ethylmethacrylate)모노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해제에 대한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아크릴 리퀴드는 제품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네일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크릴릭 파우더는 폴리 에틸 메타크릴레이트(polyethyl methacrylate ; PEMA)를 주성분으로하여 미국에서는 1974년 이후로 식약청의 분석에 따르면 PEMA와 혼합해 접착력의 효과가 빠르다고 알려진 PMMA(polyethyl methacrylate: 폴리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첨가하는 것은 첨가는 인체해 유해 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산화 티탄(titanium dioxide)을 혼합하여 핑크색과 복숭아 색의 파우더를 만들 수도 있다.

아크릴릭의 기본구성 화학 성분은 폴리머(Polymer), 캐탈리스트(Catelist), 모노머(Monomer)로 나뉜다. 모노머는 단량체(고분자화합물 또는 화합체를 구성하는 분자량이 작은 단위의 물질로 단위체 또는 모노머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중합체를 합성 할 때 중합반응에 의한 출발물질을 말한다)로 비교적으로 저분자 화합물의 단분자이자 중합체의 출발물질로 리퀴드 아크릴릭이 모노머의 형태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폴리머는 다량체로서 접착성을 가진 긴 체인 형태의 모양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단단한 물질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완성된 아크릴릭 네일을 폴리머라고 한다. 캐탈리스트는 촉매질로서 물질을 빨리 굳게 하는 성분이 있으며 파우더 아크릴릭 폴리머를 캐탈리스트와 혼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크릴릭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간혹 리퀴드와 파우더를 회사가 다른 제품들을 혼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다. 아크릴릭 리퀴드와 파우더는 다른 장소에서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 온도는 16~27℃에 보관하는 것이 적당하다. 적정온도가 맞지 않을 경우 모노머의 냄새가 폴리머로 스며들어가게 되어서 굳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폴리머가 오염될 경우 노란색을 띠며 딱딱하게 굳어져 모노머를 보관할 때에는 투명하지 않으면서 대체로 두꺼운 플라스틱 병에 담아야 한다. 아크릴릭 네일 서비스는 22.2℃에서 가장 효과가 좋으며, 고객의 손이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며 작업을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크릴릭 종류 중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다른 것이므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크릴릭 서비스 대부분은 네일 시스템에서 네일 표면의 세척제와 프라이머, 아크릴릭 리퀴드와 아크릴릭 파우더의 주요성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일 표면 세척제는 네일 표면에 남아있는 기름성분을 용해하고 동시에 깨끗하게 세척해 준다. 세척제는 아크릴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솜에 묻혀 닦아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¹⁴⁾

(3)믹스미디어(Mix Media)

믹스미디어는 대회 작품으로 많이 활용한다. 각각 기법들을 조합하여 믹스미디어 네일아트와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젤네일기법, 젤원톤스컬프처, 아크릴네일, 3D, 엠보젤과 젤마블을 조합하여 독창적이고 다양한 네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림 4-1〉 2016, 장소영, p.40



〈그림 4-2〉 2018, 나비의 여행

14) 전게서. p152

(4) 핸드페인팅

핸드페인팅(Hand Painting)은 아크릴물감이나 에나멜을 이용하여 네일바디에 직접 디자인을 하는 기법이다. 캔버스처럼 손톱을 작은 화폭으로 생각하고 브러시를 이용해 자신의 개성이 묻어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간편히 그릴 수 있는 기법이기에 때문에 일반 세필작업보다는 디자인의 속도도 빠르고 간편해서 네일샵에서 많이 사용된다.¹⁵⁾ 이 그림 ‘강호현파’ 네일 작품은 핸드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호랑이를 표현한 작품이다. 매화는 선비의 기품과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며, 호랑이는 동양화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동물로 인식되어 집안에 걸어만 놓아도 잡귀가 오지 못하고 물러간다는 인식이 있다.. 선의 강약으로 험난하지만 포근한 느낌을 살려 산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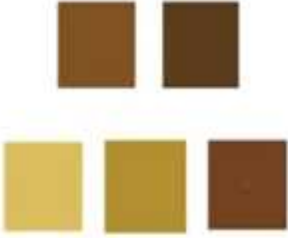


〈그림 4-3〉 2012, 김경희 , ‘강호현파’

15) 곽형심. 2003 p377

제 2 절 구스타프클립트 조형적 특성을 통한 네일 디자인 연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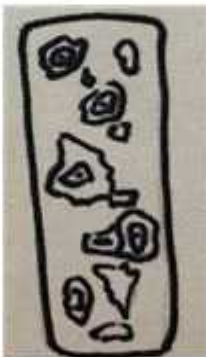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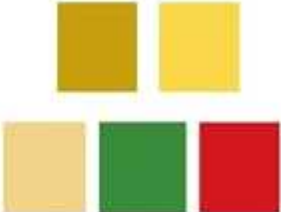
〈표 4-1〉 연구사례 I. 인고의 기다림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한
		
		
		
작품제작		
		

〈표 4-2〉 연구사례 II. 삶의 이중생활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표 4-3〉 연구사례 Ⅲ. 대칭속의 조화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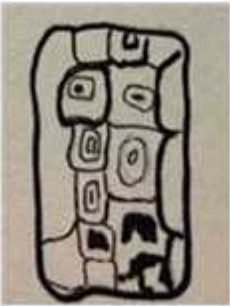
〈표 4-4〉 연구사례 IV.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표 4-5〉 연구사례 V. 자유의 날개짓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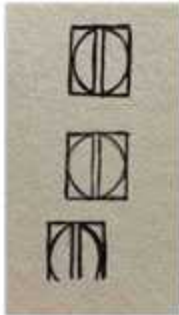
〈표 4-6〉 연구사례 VI. 아름다운 여행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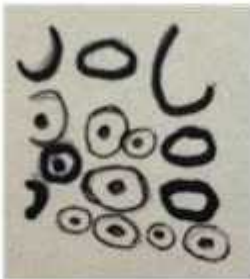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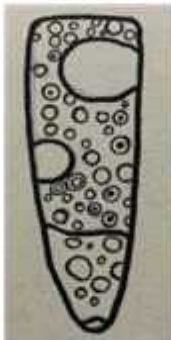
〈표 4-7〉 연구사례 VII. 환희의 정점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표 4-8〉 연구사례 VIII. 찬란한 황금빛 여심의 자화상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표 4-9〉 연구사례 IX. 여인! 삶을 말하다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표 4-10〉 연구사례 X. 축제의 향연

모티브	응용 모티브	색채제안
		
		
작품제작		
		

제 5 장 결 론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색의 마술사, 에로티시즘의 역사적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에 대해 살펴보고,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작품의 회화적 특징을 연구하고 작품의 형태와 색채를 분석해 보았다.

작품 제작에 앞서 클림트의 작품을 기하학적 패턴과 금박과 같은 화려한 색채, 여인들을 소재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를 생각하여 작품에 스며들게 하고자 노력하였고, 회화 작품의 색채감과 특성을 이미지 스케일과 함께 NCS 표색계를 활용하여 분석, 제안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가 표현한 기하학적 기법 및 장식적인 배경, 대칭적인 구성과 화려한 색채를 네일 작품 디자인에 응용 제작 하였다.

본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4장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사례 작품들은 무한한 예술적 작품들을 명화로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술적 가치를 네일 팁 위에 표현 하고자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색의 마술사, 에로티시즘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적, 색채 적 특성을 분석하여 네일 디자인에 재구성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을 재구성 하고 색채의 다양함을 충분히 반영하여 네일 작품 디자인의 모티브로 제작 표현 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는 풍경화도 많이 그렸는데 네일 작품의 배경에 응용하여 표현 하였고, 여인들의 모습을 여러 모양들로 형상을 바꾸어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스타프클림트 작품 중 10작품을 선정하여 네일 디자인에 접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사례 I.네일 작품 디자인 ‘인고의 기다림’은 화려한 금빛으로 장식된 커다란 가운은 찬란하게 빛나며 답을 수 없는 짧은 순간의 강렬함으로 작품의 감흥을 배가 해주는 작품이다. 배경 틀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투명감을 주어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인을 젤 컬러를 사용하여 선명함을 더하였고 포크아트 물감의 금색을 이용하여 라인을 더욱 화려하고 강조되게 표현해주었다.

연구사례Ⅱ. 네일 작품 디자인 ‘삶의 이중생활’은 가장자리의 황금 기둥은 나무 소재를 이용하여 젤 컬러와 포크아트 물감으로 음영을 주었고 황금기둥의 차가운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운 편이지만 색채 표현은 주황색, 파랑색, 하늘색, 노란색, 금색 등 밝은 색을 이용하여 극적인 대비를 이루려고 하였다.

연구사례Ⅲ. 네일 작품 디자인 ‘대칭속의 조화’ 브리셀의 스토클레 저택의 장식벽화를 위한 초안’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모자이크 장식을 표현하고 중앙에 금색은 호일을 이용 화려한 색감을 표현하였다. 룡팁의 곡선 라인은 UV GEL로 그렸고 금색 호일로 강조하였으며 무광으로 마무리 하면서 매트한 컬러감과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사례Ⅳ. 네일 작품 디자인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은 금빛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운을 입은 두 연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다. 황금빛의 웅장함과 초록과 분홍과 노랑의 조화를 젤 컬러와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다. 엠보 기법을 통하여 선을 터치하여 강조하였다.

연구사례Ⅴ. 네일 작품 디자인 ‘자유의 날개 짓!’는 클림트 작품 중에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유화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젤 칼라와 포크아트 물감을 믹스하여 면과 선을 연결하였고 거친 느낌의 선은 아크릴 물감으로 덧 칠을 하였고 생동감 있는 색채표현을 하고자 원색에 가까운 색감을 사용하였다.

연구사례Ⅵ. 네일 작품 디자인 ‘아름다운 여행’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듯이 색채감의 대비로 분위기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하였고, 네일 디자인 역시 그 느낌과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명도와 채도를 대비시켰다. 경계되는 두 개의 제목으로 볼 수 있듯이 네일 팁의 죽음의 상징인 해골을 그려 넣었고, 삶을 상징하는 밝은 색계열의 젤 칼라를 사용하였고 아크릴 물감으로 핸드페인팅 하였다.

연구사례Ⅶ. 네일 작품 디자인 ‘환희의 정점’은 작품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차가움과 몽환적인 분위기의 여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점선의 패

턴이 반복되어져 있다.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하얀 점선을 찍어서 그 느낌을 더욱 살리고자 하였다. 남보라 계열의 컬러톤을 달리하여 색채감을 향상시키고 녹색계열의 색감을 사용해 차분하고 차가운 느낌을 연출하였다.

연구사례Ⅷ. 네일 작품 디자인 ‘찬란한 황금빛 여심의 자화상’의 전체적인 금빛 느낌을 살려서 곡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젤 컬러로 묘사하였고, 원작의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리고자 저명도의 색감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마무리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광택 젤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느낌을 더해주었다.

연구사례Ⅸ. 네일 작품 디자인 ‘여인! 삶을 말하다’는 작품의 꾸밈없는 사실적 묘사를 통해 흑과 백, 젊음과 노년, 탄생과 죽음 등 극과극의 대비를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능적인 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비를 통해 나타난 사실적 느낌, 노년의 우울함, 장년의 원숙함과 화려함, 유년의 탄생을 작품 속에 흑색, 보라, 주황, 노랑, 흰색 점선의 크고 작음을 활용하였다.

연구사례Ⅹ. 네일 작품 디자인 ‘축제의 향연’은 윤택이면서도 수채화 적인 느낌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젤 칼라와 젤 클렌저를 이용하여 그 느낌 그대로 묘사하였다. 또한 젤 칼라를 사용하여 윤택 느낌도 같이 표현하였고 작품의 특징을 화려한 색감으로 디자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은 네일 디자인에 접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난해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색채 특성을 살려서 네일 디자인에 적용한 결과 화려하고 섬세한 색채요소들이 네일 살롱에서도 실용도 높게 쓰여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스타프클림트의 작품에서 보이는 색채특성에서 다른 색채와 여러 가지 기법의 조합들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색채적용과 디자인 구상의 범위가

확대됨이 가능하였다.

구스타프클림트 작품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기하학적 양식과 장식적 배경, 대칭적 구성과 금박과 은박의 조화를 손톱 안에 표현하면서 구스타프클림트의 예술작품은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작품과 접근 할 수 있도록 작품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으며, 네일 디자인의 조형적 가치를 높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용적이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로 시술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예술 사조들의 작품을 작품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분석되고 심화되어 그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나영 외 10명. (2009) 『네일아트 Technology』. 광문각
- 곽형심 외 8명. (2003) 『미용학개론』. 정문각
- 김수연, 백선영, 강상모. (2012) 『UV Gel을 이용한 네일디자인 기법』 서울 : 대한 피부 미용학회
- 니나 크렌젤. (2007) 『구스타프클림트』 서울 : 도서출판 예경
- 마르코메네구초, 노윤희 역. (2010) 『대중성과 다양성의 예술 현대미술』. 마로니에북스
- 박은주. (2009)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규. (2009) 『구스타프클림트 정적의 조화』 서울 : 가산출판
- 월 고퍼츠, 김세진 역. (2014) 『발칙한 현대미술사』. 서울 : 알에이치코리아
- 이숙연 외 4명. (2009). 『Nail Care & Design』. 청구문화사
- 이은경 외 5명. (2003). 『Professional』. 광화문
- 이영순, 한영숙, 전미향, 조미자. (2005). 『네일관리학(제2판)』. 서울: 고문사
- 장폴뷔용, 윤철규 역. (1992) 『아르누보』. 서울 : 열화당
- 조선아. (2013)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속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소진. (2018) “알폰소무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네일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연. (2017) “피에르 보나르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아트마스크 및 네일 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카린 자그너, 심희섭 역. (2007) 『아르누보』. 서울 : 미술문화

2. 인터넷 자료

http://www.binail.com/shop_contents/myboard_read.htm?myboard_code=sub64&myboard_idx=27884&idx=698275

http://www.mbcbeauty.co.kr/?r=anyang&m=bbs&bid=gallery&cat=%EA%B2%BD%EA%B8%B0+%EC%95%88%EC%96%91&p=8&sort=d_regis&orderby=desc&uid=3368

http://www.nailexpo.net/shop_contents/myboard_read.htm?myboard_code=sub64&myboard_idx=26382&idx=82382

<https://blog.naver.com/alshfldu/22117367949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query=Gustav+Klimt&merge=0&res_fr=0&res_to=0&sort=0&viewtype=0&site=&face=1&color=0&mcs=0&a_q=&n_q=&o_q=&sm=tab_etc#imgId=webwww.jmhdezhdez.com%2F2014%2F02%2Ffrases-klimt-gustav-phrases-quotes-satze.html_70&vType=rollou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query=Gustav+Klimt&merge=0&res_fr=0&res_to=0&sort=0&viewtype=0&site=&face=1&color=0&mcs=0&a_q=&n_q=&o_q=&sm=tab_etc#imgId=blog55808578%7C36%7C40174471494_1&vType=rollou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761&cid=46720&categoryId=46838>

<https://www.picoku.com/tag/%EC%95%84%ED%81%AC%EB%A6%B4%EB%84%A4%EC%9D%BC%EC%95%84%ED%8A%B8>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64>

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C%9D%BC_%EC%95%84%ED%8A%B8

ABSTRACT

A study on Nail design Using Gustav KLIMT art work

Kim, Kyoung-Sook

Major in Beauty Colo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ng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n approach to analyze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Gustav KLIMT (1862 ~ 1918), who is considered to be an Austrian symbolist, a magician of color, and a master of eroticism, and to reint the works.

Gustav KLIMT left behind many works such as paintings, murals, and sketches. and, He used the body of a woman to describe the theme of the piec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the paintings were visually measured and applied using the NCS color system.

In this way, using the various colors in Gustav KLIMT's work, The nail design will be applied with various techniques such as UV gel, acrylic, hand painting, and mixed media to design artificial nail tips, acrylic, and Sparky, and propose nail products.

It was expressed using the geometric style and decorative background, symmetrical composition, and the combination of gold and silver leaf in Gustav KLIMT's work.

Through NCS natural color system analysis, colors and works expressed in Gustav KLIMT's work were applied, and ten nail design pieces were proposed and produced.

The conclusions of the in-depth research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Geometric Structure of KLIMT's Works and Art of Art Nouveau, I can see that it has design properties that can be used as a motive for nail design.

Second, the decorative background and symmetrical composition expressed in Gustav KLIMT's work enabled rich imagination and a variety of design representations.

Third, inspired by the artist's art work, I reconfigured various kinds of work away from traditional nail design.

Fourth, it w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artistic value through Gustav KLIMT's various works and to widen the scope of design by making various nail design pieces.

Fifth, In view of the current social instability by using colorful colors as symbols I wanted to express his works with a bright and colorful feel. Gustav KLIMT's Geometric Patterns and Expression Techniques, Using colorful gold, The nail salon also recommends this design and color to its customers. and It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nail design so that it is not limited to pictures.

In addition, it was designed not only for works of art but also for easy access in everyday life. Through this research, nail design reflecting social phenomena was applied to the works of the author, and I hope that the research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value.

[Key Words] Gustav KLIMT, NCS natural color system, Nail Design, Gel Nail